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 초 시
속 초 문 화 원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화원



속 초 시
속 초 문 화 원

發 刊 辭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이 걸어온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향토문화 교육교재가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추진위원·편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는 도시역사가 오래 되지 않은 관계로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고장은 기원전 9세기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음이 조양동선사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삼국시대 신라 화랑의 훌륭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그리고 많은 고승들의 수도정진의 도량으로 활용되었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환경을 간직한 고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향토문화 교재는 우리시민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향토의 얼을 선양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다양한 분야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제일의 관광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고장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어,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는 훌륭한 관광안내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향토뿌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관광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만큼, 많은 시민과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 속에서 깊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우리고장의 향토색 짙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자원을 영원히 보존·전승하고, 널리 소개하는 향토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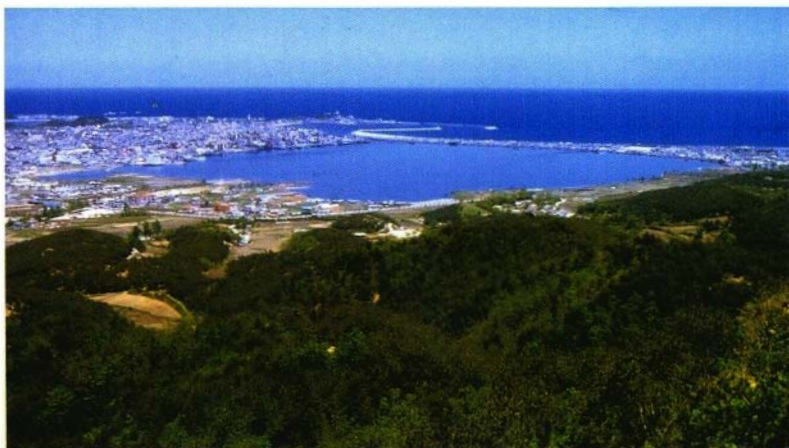
속 초 시 장 동 문 성



1950년대 전경



1960년대 전경



1970년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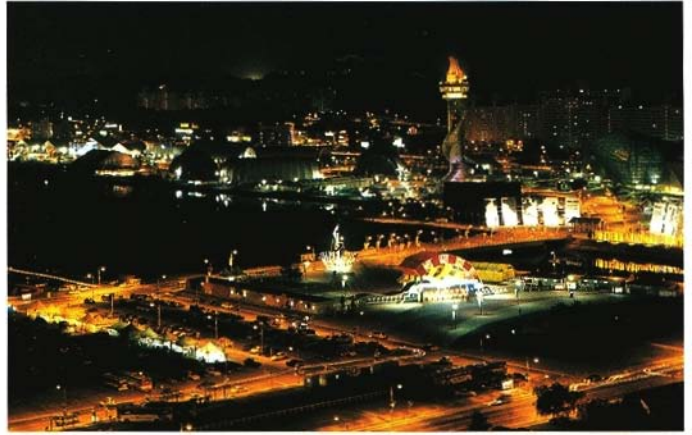
📍 현재의 속초



📍 속초의 야경



☉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 백두산항로 개설

차례

I. 속초의 자연환경(自然環境) / 11

1. 지형(地形) / 13
2. 기후(氣候) / 16
3. 식물·동물상(植物·動物相) / 18

II. 속초의 역사(歷史) / 25

1. 선사시대(先史時代) / 27
2. 고대시대(古代) / 30
3. 고려시대(高麗) / 31
4. 조선시대(朝鮮) / 32
5. 일제시대(日帝) / 36
6. 현대(現代) / 39

III. 속초의 지명(地名) / 45

1. 연혁(沿革) / 47
2. 지명 유래(由來) / 48
3. 행정구역 중심의 지명(行政區域上 地名) / 49

IV. 속초의 문화(文化) / 67

1. 문화재(文化財) / 69
2. 민속(民俗) / 79
3. 설화(說話) / 88
4. 방언(方言) / 95
5. 교육(教育) / 96

V. 속초의 산업(産業) / 99

1. 농업(農業) / 101
2. 수산업(水産業) / 104
3. 관광업(觀光業) / 108

VI. 속초의 향토인물(鄉土人物) / 117



I. 속초의 자연환경(自然環境)



1. 지형(地形)
2. 기후(氣候)
3. 식물·동물상(植物·動物相)

I. 속초의 자연환경(自然環境)

1. 지형(地形)

속초는 강원도 동북부 동해안 동경 128°25' ~ 37' 과 북위 38°07' ~ 13' 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고성군(高城郡), 남쪽으로 양양군(襄陽郡), 서쪽으로 인제군(麟蹄郡), 그리고 동쪽으로 동해와 접하는, 남한땅 동해안에서 최북부에 위치한 항구(港口) 도시이며, 천혜의 관광(觀光)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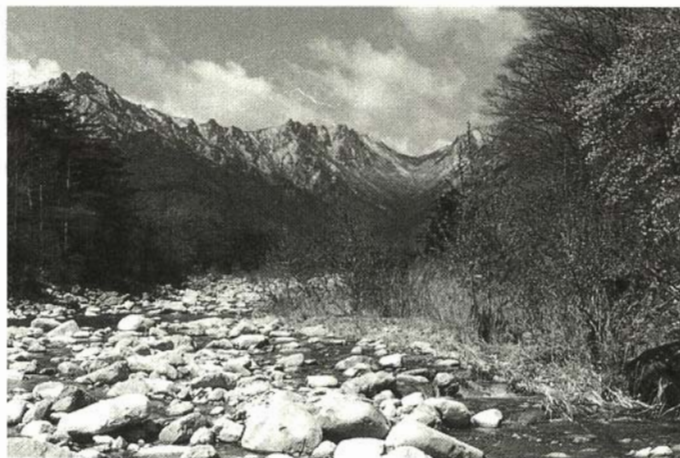
속초는 태백산맥 줄기 중 최고봉인 설악(雪嶽)의 대청봉(1,708m)이 남서 경계에 위치하고, 마등령·화채봉·칠성봉 등 높이 1,000m 이상의 높은 연봉들이 서부와 남부의 자연적 경계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한라산·지리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인 설악산은 수려하면서도 웅장한 산세, 울산바위를 비롯한 기암괴석, 계곡의 맑은 물과 수많은 폭포 및 숲, 그리고 신흥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 등이 조화를 이루어 사철 경관이 뛰어나다.

설악산은 내설악(內雪嶽)과 외설악(外雪嶽)으로 구분되는데,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내설악, 동쪽은 외설악이다. 또한 북동쪽의 화채봉과 서쪽의 귀떼기청봉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남쪽은 남설악, 북쪽은 북설악이라 부른다.

가. 암석(巖石)과 능선(稜線)

설악산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巖石)은 대청봉을 제외하고는 여러 종류의 화강암(花崗巖)으로 되어있다. 태백산맥은 제3기의 용기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은 강원도의 고성·속초·인제·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



〈사진 8. 설악산 전경〉

를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의 능선으로는 대청봉을 기점으로 북방으로 무네미 고개, 북서쪽으로 마등령, 저항령, 다시 북쪽으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능선들이며, 그 중 대청봉에서 마등령까지의 능선을 공룡능선이라 부르며, 날카로운 기암 괴석과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청봉의 남쪽으로는 태백산맥이 계속 이어지며 북서쪽으로 귀떼기청봉, 여기에서 대승령과 안산에 이르는 능선이 서북주능이다.

황철봉과 미시령 사이의 동쪽으로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달마봉으로 이어지고, 목우재와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낮은 능선이 뻗어있다.

나. 하 천(河川)

남서쪽을 제외한 모든 사면이 급경사이며, 내설악의 남부에는 한계천이, 북부에는 북천이 서쪽으로 흘러 북한강의 상류를 이루는데 외설악의 남부에는 양양 남대천이, 북부에는 쌍천이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이러한 설악산의 분수령 동쪽 사면이 급경사를 이루며 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달마봉·청대산 등의 산줄기가 시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해안까지 뻗어있다.

속초지역에는 설악산에서 발원한 쌍천이 동쪽으로 흐르면서 중류에서 하안단구를 형성하고, 하류에서는 하천 양안에 도문평야를 만들면서 시의 남쪽 경계를 이룬다. 북쪽의 청초천은 미시령 부근에서 발원하여 청초호로 유입되는데, 하천 주위에 비옥한 충적평야를 형성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하천 경사가 급하고 유로연장이 짧아 강수량을

저유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갈수기에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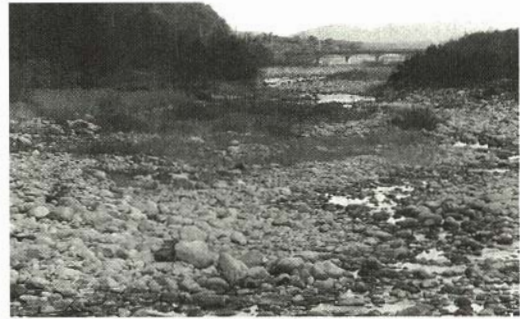
다. 해안지형(海岸地形)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가 지질 구조와 지형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한다.

사빈(沙濱)은 해안이나 호수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퇴적지형으로 보통 암석해안이나 절벽해안에 접해 있는 곳에서 길고 좁은 퇴적물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양 퇴적이 일어나는 해안 평야의 바깥쪽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외에 특수한 것으로 연안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좁은 평행사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평행사주들은 바다를 고립시켜 석호를 형성하는데, 속초에서는 청호동 지역의 지형이 이에 해당한다.



〈사진 9. 속초해수욕장의 백사장〉



〈사진 10. 쌍천하구의 자갈〉

속초지역의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된 암석과 자갈이 많은 해빈(海濱)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 공급원은 고성군 토성면의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이다.

라. 석 호(潟湖)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석호(潟湖)가 많다. 석호는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

주나 사취 등에 의해 가로막혀 형성된 호소로 동해안의 석호는 작은 하천의 하구에 발달하였으며 이런 하천의 경우에는 토사의 운반량이 적어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속초지역에는 영랑호와 청초호가 분포하고 있다.

영랑호(永郎湖)는 장사동과 영랑동·금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넓이는 약 1.21km², 둘레는 8km 정도이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신라시대의 화랑이었던 영랑·술랑·남랑 등이 경주에서 열리는 무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다가 이 곳에 들르게 되었는데, 영랑이 호수의 자연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조차 잊어버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청초호(靑草湖)는 청학동·교동·조양동·청호동 일대에 걸쳐있는 호수로 넓이는 약 1.38km²(현재는 호수 일부를 매립하여 '99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장 조성함에 따라 면적이 다소 줄었음), 둘레는 5km 정도이다. 미시령 부근에서 발원해 학사평과 소야평야를 거쳐 동쪽으로 흐르는 청초천이 이곳으로 흘러든다. 청초호는 천연적으로 선박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현재 속초항의 내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1999년에는 청초호 매립지에서 국제관광엑스포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2. 기 후(氣候)

속초는 한반도의 동쪽에 위치하며 사계절이 뚜렷이 구별되는 온대성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북서계절풍이 불고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특히 속초지방은 태백산맥에 속하는 설악산을 서쪽에 두고 동쪽에는 동해에 연하여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 기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호우나 가뭄, 폭풍이나 대설 등 다양한 기상 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가. 강수(降水)의 특성(特性)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1,100~1,500mm의 분포를 보이는데 강수량은 계절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겨울철의 강수량은 대단히 적게 나타난다. 속초 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로서

저유하기 어려운 지역 여건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갈수기에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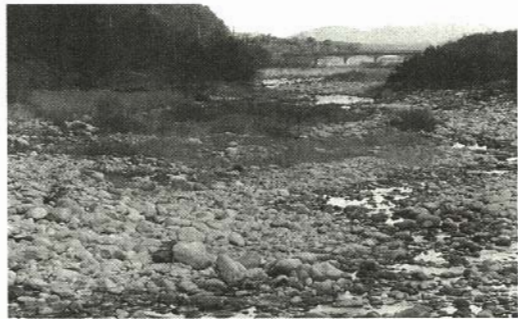
다. 해안지형(海岸地形)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가 지질 구조와 지형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 화강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된 남부는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부는 비교적 사빈해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한다.

사빈(沙濱)은 해안이나 호수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퇴적지형으로 보통 암석해안이나 절벽해안에 접해 있는 곳에서 길고 좁은 퇴적물의 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해양 퇴적이 일어나는 해안 평야의 바깥쪽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이외에 특수한 것으로 연안에 평행하게 나타나는 좁은 평행사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평행사주들은 바다를 고립시켜 석호를 형성하는데, 속초에서는 청호동 지역의 지형이 이에 해당한다.



〈사진 9. 속초해수욕장의 백사장〉



〈사진 10. 쌍천하구의 자갈〉

속초지역의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은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으로 되어 있으며, 쌍천 하구 부근의 해안은 쌍천에서 운반된 암석과 자갈이 많은 해변(海濱)이 발달하고 있다. 속초지역의 해안에 발달한 사빈의 모래 주 공급원은 고성군 토성면의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이다.

라. 석 호(潟湖)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석호(潟湖)가 많다. 석호는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나. 기 온(氣溫)

속초의 1년 평균 기온은 11.9°C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속초의 기온이 다른 지방에 비하여 온화한 것은 동해의 영향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사계절에 걸쳐 동해로부터 유입되는 해풍은 속초의 기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동해가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기온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에는 서해안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수온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다. 바람의 풍향과 풍속, 폭풍(風向, 風速, 暴風)

풍향은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특수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일정한 바람이 탁월하게 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절적인 영향도 크게 받아 여름에는 주로 남동풍, 겨울에는 북서풍이 우세하다. 풍속 또한 지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내륙보다는 해안 지방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속초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기상현상 중에서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폭풍이다. 일반적으로 폭풍은 10분간 평균풍속이 13.9m/s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속초의 연 폭풍일수는 16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겨울철에 폭풍현상이 많은 것은 강한 북서 계절풍의 영향이며, 봄철에 폭풍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영동지방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이것은 태백산맥과 동해가가 가까이 있어 국지적으로 바람의 이동이 급하게 이루어지며 골짜기 등을 따라 바람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 기후 계절(氣候 季節)

1) 서 리

속초지방의 첫서리는 대체로 11월말에서 12월초에 내리며, 마지막으로 서리가 내리

는 것은 대체로 3월이 된다. 첫서리가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은 1983년 10월 24일이며 가장 늦게 내렸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다.

2) 눈

속초 지방의 첫눈은 대체로 12월에 내리며, 이른 경우에는 11월 초·중순에 내리기도 한다. 마지막 눈은 대부분 3월경에 내린다. 가장 빨리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10월 25일이며 가장 늦게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4월 14일이다.

3) 얼음

속초지방의 첫 얼음은 대체적으로 11월경에 얼고 마지막 얼음은 3월경이다. 가장 빨리 얼음이 얼었던 때는 1984년 10월 29일이며 가장 늦게 얼었던 때는 1984년 4월 20일이다.

3. 속초의 식물·동물상(植物·動物相)

가. 설악산의 식물

1) 설악산의 생물지리학적 특징(特徵)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인 관계로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 차가 12~13℃가 된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털개불알꽃, 홍월굴 등을 비롯 금강봄맞이꽃 등 남한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며, 눈측백, 난쟁이붓꽃, 솔나리 이외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 변천에 따라 식물이 이동하는, 즉 남하 또는 북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 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는 것은 대체로 3월이 된다. 첫서리가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은 1983년 10월 24일이며 가장 늦게 내렸던 해는 1984년 4월 8일이다.

2) 눈

속초 지방의 첫눈은 대체로 12월에 내리며, 이른 경우에는 11월 초·중순에 내리기도 한다. 마지막 눈은 대부분 3월경에 내린다. 가장 빨리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10월 25일이며 가장 늦게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4월 14일이다.

3) 얼음

속초지방의 첫 얼음은 대체적으로 11월경에 얼고 마지막 얼음은 3월경이다. 가장 빨리 얼음이 얼었던 때는 1984년 10월 29일이며 가장 늦게 얼었던 때는 1984년 4월 20일이다.

3. 속초의 식물·동물상(植物·動物相)

가. 설악산의 식물

1) 설악산의 생물지리학적 특징(特徵)

설악산은 남한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은 태백산맥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태백산맥 중에서는 최고봉인 관계로 저지대와 산 정상과의 기온 차가 12~13°C가 된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게 되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털개불알꽃, 홍월굴 등을 비롯 금강봄맞이꽃 등 남한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자라며, 눈측백, 난쟁이붓꽃, 솔나리 이외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한온(寒溫)의 기후 변천에 따라 식물이 이동하는, 즉 남하 또는 북상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기후가 한랭해지면 식물의 분포 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반면 기후가 온난해지면 그 분포 지역이 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은 고지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설악산의 식생개황(植生概況)

설악산의 식물구계는 중일식물구계, 온대아구의 한국구에 속하며,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원시림은 신갈나무, 서나무, 당단풍 등의 낙엽활엽수림과 소나무, 잣나무, 분비나무, 주목 등의 상록침엽수림의 혼합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단순림을 구성하고 있다.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은 낙엽활엽수림으로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나, 설악산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산맥에서 서해와 동해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3:1에 달해 외설악은 내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심하고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빨라 많은 기암 절벽과 폭포를 만들며, 표토의 깊이가 얇고 건조한 편이어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치 않아 성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내설악은 외설악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표토가 깊고 수분 조건이 적당하여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편이다.

따라서 외설악에서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소나무림의 발달과 굴참나무군락을 볼 수 있으며 내설악은 대부분이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활엽수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조건 때문에 고도별 수직 분포와 구성 종의 차이를 약간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1,200여종 이상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매우 넓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과거 인간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삼림이 울창하였으나, 6·25전쟁 중에는 격전지이었기 때문에 삼림의 훼손이 심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초까지는 인간의 간섭이 없어 삼림의 복구 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보다 삼림이 울창하고 식물상이 다양하였다.

그리하여 설악산국립공원과 그 주변을 포함한 지역이 1982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기부터 등산 인구나 관광객이 급격히



〈사진 11. 설악산 주목 군락지〉



〈사진 12. 참나무〉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왜래종이 도입되는 등 종의 분포 상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3) 설악산의 대표적인 수종(樹種)

설악산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는 신갈나무, 소나무, 당단풍, 졸참나무, 서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굴참나무가 있다.

4) 설악산에 자라는 특산식물(特産植物)

우리나라에서만 서식 또는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설악산에 자라는 모데미풀과 특산종의 설악눈주목 등 특산 변·품종 두메김의털을 포함 모두 71종류가 있다.

5) 설악산에 자라는 희귀(稀貴) 및 멸종(滅種)위기 식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 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과 보호대상식물 중 보호대상 식물은 솔나리를 비롯해 74종류가 설악산에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歸化植物)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은 29속 33종류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 225종에 대한 설악산의 출현 종수는 1,262종류로 2.61%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



〈사진 13. 금 낭 화〉



〈사진 14. 숨 다리〉

존에 조사된 종류에서 금낭화(Dicentra spectabilis)가 자생종으로 밝혀져 제외되고 새로운 종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설악산에는 귀화종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귀화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설악산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운반 등 귀화식물의 도입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나. 속초의 해안식물(海岸植物)

1) 해안환경(海岸環境)

속초의 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 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는 육지에서 풍화 침식으로 생성되는 모래를 운반 공급하는 양양 남대천, 쌍천, 용촌천 등의 하천이 있어 모래해안이 발달되어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약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하며,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들이 해안식물이다. 이들 해안식물들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영양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하여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의 비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모래해안에서 파도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 바깥쪽의 불안정 지역에는 땅속줄기가 발달한 식물, 기는줄기가 발달한 식물, 뿌리가 깊은 방석형 식물 등이 잘 자라며, 암석해안의 바위틈에는 방석형 식물과 잎이 두터운 식물, 털이 있는 식물 등이 잘 자란다.

2) 해안식물(海岸植物)

속초시의 해안에 자라고 있는 해안식물 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은 왕잔디를 비롯해 밀사초 등이 있다.

다. 속초의 습원식물(濕原植物)

석호(瀉湖)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관개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속초시의 호수, 하천, 관개용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과 물질경이, 부엽식물에는 가래, 애기가래, 수련, 개연꽃, 부생식물에는 개구리밥, 좁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는 갈대, 줄, 부들과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부처꽃 등 이외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라. 설악산의 동물상(動物相)

1) 포유류

설악산에서의 보고된 과거 문헌, 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물 등), 관찰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총 6목 15과 39종을 기술하고 있다. 기록된 39종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 절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설악산에서는 물론 이미 남한에서는 절종되었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호랑이, 대륙사슴이다.

나) 사라져 가는 종류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하늘다람쥐, 곰(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 늑대, 여우, 표범 등이며,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설악산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류도 있다.

다)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중·대형 동물들은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 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수달(멸종위기

동물),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노루, 고라니, 노랑목도리담비, 족제비 등이다.

라) 환경 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청설모, 다람쥐, 멧토끼, 들쥐(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멧밭쥐, 땃쥐, 뒤쥐, 갈밭쥐 등) 등이다.

2) 조류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62종으로 이 중 텃새 32종, 여름새 23종, 겨울새 3종, 통과조 1종, 미조 1종, 미확인종 2종이다. 최우점종은 박새이며 다음으로 쇠박새, 동고비, 곤줄박이, 노랑할미새, 어치의 순이다.

설악산과 속초 지역에서 관찰된 종류를 추가하면 속초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216종이 된다.

3) 파충류 · 양서류 · 담수어류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줄장지뱀, 대륙유혈목이, 살모사를 비롯 13종이 있으며, 양서류는 도롱뇽, 두꺼비, 청개구리 등이, 담수어류는 칠성장어, 전어, 산천어, 잉어 등 총 61종류가 조사되었다.

Ⅱ. 속초의 역사(歷史)



1. 선사시대(先史時代)
2. 고대시대(古代時代)
3. 고려시대(高麗時代)
4. 조선시대(朝鮮時代)
5. 일제시대(日帝時代)
6. 현대(現代)

II. 속초의 역사(歷史)

1. 선사시대(先史時代)

우리나라의 역사는 석기를 사용하고 무리 생활을 이루었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이 때부터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였다. 정착생활은 농경문화의 틀을 만들어 민족문화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속초 지역에서 조사, 보고된 구석기 또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없다. 그러나 인근 지역인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서 구석기 유적이,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속초 지역에도 사람이 살았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인근 양양 오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대가 앞서는 신석기 시대 유적지임이 밝혀졌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나왔는데, 이것의 원산지는 백두산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흑요석은 당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속초는 원시 시대 사람들의 이동 경로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가.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신석기 시대에 이어 B.C. 1000년경부터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속초는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강릉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지는 속초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유적지이다.

조양동 일대는 낮은 구릉과 평야 지대로서 청초호와 접하고 있어 옛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조양동 지역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낮은 야산에서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숫돌조각이 지표 채집되었고 일부 탐색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어 1992년 5월부터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양동 구릉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2기와 집자리 7기가 드러났다. 고인돌 발굴 조사 결과 완전한 형태를 갖춘 부채꼴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부채꼴주머니도끼는 남한에서 발견된 유일한 것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유물로 평가 받을만하다.

집자리 7기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 반듯한 모양에 가까우며, 대부분이 풍화된 암반층을 파고 설치되었다.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구멍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화살촉, 그물추, 돌도끼, 가락바퀴, 숫돌조각 등이다. 특히, 굽다리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문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 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 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사적 제 376호로 지정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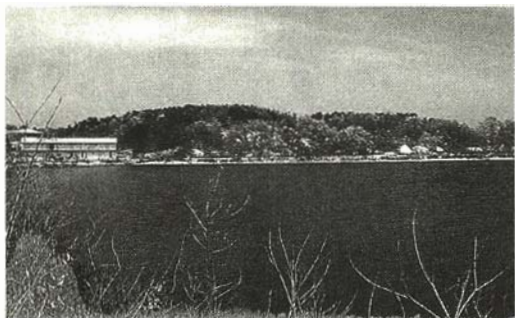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12월 나기봉 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간돌검은 자루가 있는 돌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이며, 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슴베(자루 속에 박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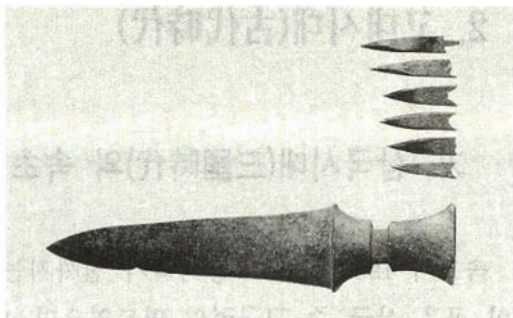
〈사진 15. 조양동유적지 발굴모습〉



〈사진 16. 부채꼴 주머니 도끼〉



〈사진 17. 장사동 청동기유적 먼 모습〉



〈사진 18. 장사동 청동기유적 출토유물〉

뾰족한 부분) 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이 유물은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나. 동예(東濊)

청동기시대 이후 지배·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국가가 형성되었다. 그 초기 국가의 하나로 강원도 동해안 북부에 동예(東濊)라는 나라가 있었다.

동예의 크기는 총 2만호 정도로 문화적으로 고대 국가의 전 단계까지 발전하였으나, 지리적인 여건상 선진 문화(금속문화)의 수용이 늦었다. 이에 신석기 시대의 전통인 족외혼과 각 씨족의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는 책화라는 풍습이 남아있었다.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동예는 단단대령(單單大領, 領은 嶺같으며 오늘날의 태백산맥으로 보여진다.)의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전체를 통솔하는 대군장(大君長)은 없고 후(侯), 읍군(邑君), 삼로(三老) 등의 족장들이 각기 자기 부족들을 다스렸다고 한다. 이를 볼 때 정치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여 군장국가의 단계에 머물다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동예는 고기잡이가 중시되었다. 그들은 고구려에 공납물로 해산물을 바쳤다. 그러나 다른 초기국가들과 같이 주산업은 농업이었으며 매년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림 1. 동예의 영역〉

2. 고대시대(古代時代)

가.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속초

속초가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에 속해 있었다. 당시 이 곳은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양양의 고구려 때 이름은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복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그 시기는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峴)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중 명주(溟洲)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나. 화랑도(花郎徒)들의 순례와 불교의 발달

속초의 영랑호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화랑도는 일상 생활의 규범과 옛 전통을 배우며, 각종 제전 및 의식에 관한 훈련을 쌓고, 수렵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을 익히며,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다.



〈사진 19. 영랑호 전경〉

화랑도들은 국토순례를 중시했다. 그 중 금강산과 관동8경(關東八景)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었다. 속초의 영랑호를 비롯하여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의 사선봉(四仙峰), 고성 삼일포(三日浦), 간성 선유담(仙遊潭),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한송정(寒松亭) 등에는 화랑들의 고사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이 고장은 고승들도 즐겨 찾아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에 의해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가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에 창건되었다. 그 이외에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혈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시대(高麗時代)

가.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나라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졌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였다. 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서 경우에 따라 증감이 있었으나, 뒤에 전국은 5도(五道) 양계(兩界)로 낙착되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였고, 양계는 국경 지대에 설치된 군사행정구역으로 북계(北界)와 동계(東界)가 그것이었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 병마사(兵馬使)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 지역은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려지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交州道)와 합쳐져 교주강릉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였다.

나. 고려시대 이민족의 침입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몽고가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 왔다. 고종 40년(1253) 예구(也古)에 의한 제5차 침입 때에는 강원도에도 침입하였다. 고려 승(僧) 익장(益莊)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 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權金城)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고려 후기에 오면 왜구가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침입 기록은 무려 471회나 되는데 속초 인근에도 우왕 9년(1383)에 왜구가 동산현(洞山縣)에 침입한 기사가 있고, 우왕 6년(1380) 강릉도 상원수(上元帥)로 활약한 조인벽(趙仁璧)이 말년에 지금 낙산 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에 은거했으며,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 부근에서 왜구를 격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조선시대(朝鮮時代)

강원도는 근세조선 이후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 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 말에 형성된 교주강릉도의 이름을 바꾼 데서 출발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켜 감영 소재지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구역 정비와 행정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이때의 것이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原襄道)·강양도(江襄道)·강춘도(江春道)·원춘도(原春道) 등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반역, 강상죄(綱常罪) 등이 명칭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가. 조선시대의 속초

1) 행정구역(行政區域)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도호부는 도문면, 소천면을 포함하여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웅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태종16년(1416)에 처음으로 양양으로 불려졌는데,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아관파천 이후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 36년(1760)에는 1,265명, 1870년경에 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관동읍지(關東邑誌)에는 1,29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유학·교육(儒學·教育)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 향교를 들 수 있다.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또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벽(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 남아있는 유물재비(兪勿齋碑)에 의하면 그 자리에 물재 유희일(兪晦一)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던 향현사(鄉賢祠)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이 있었다.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도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3) 군사(軍士)와 국방(國防)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5위(五衛)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營鎭軍)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鎭管體制)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 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은 강릉대도호

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첩사(三陟浦僉使)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우리 지역은 큰 전쟁이 없었다.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4진으로 상륙한毛利 요시나리(毛利吉成)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金秀淵)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 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鄭恩信)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黃奎)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4) 교통·통신(交通·通信)

옛날 교통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驛馬制)다. 역(驛)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官物)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德山烽燧)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5) 특산물(特産物)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특산물은 전곡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모시, 철, 죽간(竹簡, 글

씨를 쓰던 대조각),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종류, 한약재), 꿀, 백화사(뱀종류), 김, 콩, 전복, 홍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승어,해삼, 송이 등을 기록하고 있다.

나. 민족운동(民族運動)의 전개

1)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동학은 1860년경 철종 때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종교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 의하면, 1869년에 2대 교주 최시형이 2년간 양양에 체류하면서 전도를 하였다고 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영동보다 영서에 동학이 크게 퍼졌고, 아울러 영서지역에서 동학군이 봉기하게 된다. 영월, 평창, 정선 등지에서 봉기한 동학군은 대관령을 넘어 한때 강릉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단행하나, 곧 강릉읍민에게 패퇴하여 평창 등지에 주둔한다. 또 홍천에서는 강릉, 양양, 원주, 횡성, 홍천 5읍 도접주였던 차기석이 동학군을 이끌고 홍천 동창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기린, 양양, 간성 등지에 비밀리에 통문을 발하여 동지를 모으고 영동으로 진격할 기세였다.

이에 강릉을 비롯한 영동에서는 유림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동학군을 조직하고 각 영에 배치하여, 동학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영서의 동학군을 공격한다. 이때 양양에서는 도문동 출신 이석범이 민병을 조직하여 홍천 내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했다.

2) 의병항전(義兵抗戰)

한말 민족운동의 두 흐름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운동이다. 의병항쟁은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를 일본인들이 시해한 사건)과 단발령에 대한 항거에서 시작되었다. 각지의 의병들은 친일적인 지방 수령을 숙청하고 일본인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치으로 9개월 정도 후에는 활동이 종식된다.

영동지역의 의병장으로는 민용호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기도 여주 사람으로 원주에서 의병을 모아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진격하여, 1896년 1월 30일 강릉에서 그 곳 의병들과 합류하여 관동9군 창의소를 설치했다. 양양 《향토지》에 의하면 양양에도 창의소가 설치되었다. 그는 의병들을 이끌고 원산까지 공격하나, 안변·선평에서 관군에

게 패퇴하여 강릉으로 후퇴한다. 원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의병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읍에서 임천리까지 전투장이 되었고, 민가 30여호가 불에 탔다. 독립신문(1896. 6. 20일자)에 보면 당시 군수가 의병에게 처형당했다는 기사가 있다.

5. 일제시대(日帝時代)

1910년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가 조직되었고, 의병 부대는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 독립군으로 재편성되어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봉기의 배경이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회복을 벌였다.

가. 일제시대의 속초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6년에 발간된 도천면 《면세일반》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외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 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

격되었다. 동시에 속초시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가 되었다.

당시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은 아직 면이었으나 속초는 이미 읍이 되었다. 그러니까 속초가 6·25사변 후 함경도 사람들의 남하로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3·1 운동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지도자는 이석범(李錫範)이었는데, 그는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으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 반동학군 활동, 의관, 면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았다는 점이 3·1운동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화벽(조영순 전도사의 딸)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하던 중 유림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이석범의 지휘와 또 다른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양양에서는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면·서면·손양면민 등 4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오전에는 도천면민이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 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대포리에 와서 합세하였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띄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에,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명이라 했는데 1천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만세운동은 4일 양양시장과 군청,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이래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6개면 82동리의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며 3일 오후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 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양지방의 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상반된 이해를 갖는 보수세력과 개화세력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연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다. 타 지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비폭력 만세운동이 일제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운동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다. 일제시대의 경제 상황

일제의 경제 침략 기본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토를 약탈하는 것이었다. 한국을 저희들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곡만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를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광대한 국유지의 지주로 군림하게 되었는데, 총독부가 소유한 토지와 임야의 면적은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880만 정보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였다. 그 외에 동양척식회사는 11만 정보를 소유하였는데 여기서 받아들이는 소작료는 미곡만 1년에 50만석이었고, 잡곡은 그 배로 추정하고 있다.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국토의 상당한 부분이 일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일본인 대지주를 양산시켰다. 여기에 1920년대에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은 농촌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 시대의 속초 지역민의 생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속초를 포함한 양양 지방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나은 편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의 소작관행》을 보면 농민들의 춘궁 상태에 관한 조사에서 자작농은 92%가 자작 겸 소작농은 72%가 춘궁 상태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은 상당히 많았다. 순소작농의 75%가 춘궁 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양양지방의 조개, 갈천, 미천, 서림 등 화전민부락은 초근목피로 연명한다는 당시 신문 보도가 있는가 하면 소작농의 66%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1938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강원도편에 보면 도천면, 양양면에 거주한 외국인 수는 남 195명, 여 192명 합계 387명이었다. 이들은 상업과 개

인 지주였고, 일부는 농장까지도 경영하였으며, 광산을 경영하던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 신문 기사에서 “외국인의 상점 외에는 불만한 것이 극히 희소”하다고 한 것을 보면, 양양군 내에 거주하는 소수 일본인은 상당한 경제력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의 편중은 1920년대의 저축액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1〉 1920년대 도천면의 저축 현황

구 분	① 1925년(도천면)		② 1927년			
	우편저금		대포금융조합		양양금융조합	
국 적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불 입 액	5,090원36전	912원50전	26,677원	15,510원	38,938원	102,817원

출전 : ①은 『면세일반』, ②는 『동아일보』, 1927. 9. 4일자.

위에서 보면 금융의 경우도 일본인 저축 액수가 조선인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천면의 경우, 1925년에서 1927년까지 조선인의 저축액은 5배 정도 증가한데 반해 일본인의 불입액은 무려 17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양양면도 일본인 불입액이 조선인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상업 등을 통하여 축적된 일본인의 자본이 토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일본인 지주를 양산해 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6. 현대(現代)

가. 해방(解放) 후의 속초

1) 공산 치하(共産治下)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 단체가 난립되어 혼란만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내고 있을 때, 미국·소련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

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2) 반공 투쟁(反共鬪爭)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은 토지 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 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과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이다.

가)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속초 애국 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통하여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들은 1946년 2월 18일 거사를 모의하다가 비밀이 탄로되어, 다음날인 2월 19일 모두 체포되었다. 증언에 의하면 바늘로 손톱 밑을 찌르고, 송곳으로 몸을 찢어 잠을 못 자게 하고, 자루를 대로 만든 망치로 쳐서 정신을 잃게 하는 고문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1946년 3월 15일 원산보안서로 송치되었다가, 4월 5일 원산 교도소로 이감된 후 1946년 6월 19일 사건 기각으로 풀려났다.

나) 90인 사건

90인 사건은 해방 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그들이 살던 적산(敵産)가옥 처리에 있어서 공산당 요인들만 차지한데서 사건이 기인되었다고 한다. 김환기, 박상희 등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하룻밤만 고초를 겪고 풀려났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잡혀갔다고 한다. 주동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어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

호림 유격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5대대장 白義坤대위, 6대대장 金鉉洲대위)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의 작전 임무는 38선 이북 지역에 침투하여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함으로써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었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 중 호림 5대대가 대청봉에서 화채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식량 등의 군수 물자 보급은 현지 반공 청년들의 지원을 받았다. 7월 8일 강현면 상북리에 진입하여 반공 청년 김종모와 김정배의 집에 4일간씩 머물면서 작전을 구상하던 중, 김정배의 조카딸이 극력 공산주의자였던 남편 이종구에게 밀고함으로써 발각되었다. 호림 부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민군과 상북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대원들이 전사하였다.

나. 6·25 동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남침을 감행하였다.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전쟁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사진 20. 설악산지구 전적비〉

다. 속초의 수복(收復)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

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이에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 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하여 도망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 앞뜰에서 크게 격파하였다.

라. 북한 주민의 월남



〈사진 21. 수복기념탑〉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분단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있다.

마. 속초시의 승격

일제시대 후기에 오면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됨에 따라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가 커져서, 1937년 7월 1일 면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10월 1일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

가 되었다.

1945. 8. 15 해방 이후 공산 치하에 있다가 6·25동란으로 수복되어 1951년부터 군정이 실시되면서 토성면, 장천리, 사진리가 편입되었다. 그 후 1954. 11.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의거하여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사진 22. 1963년 시로 승격될 때의 속초 모습〉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6호에 의해 속초시로 승격되었다. 1966. 1.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과 교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외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다.

바. 현재의 속초



〈사진 23. 2000년 현재의 속초 모습〉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행정구역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 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8만 9천여명으로 1991년 이후 꾸준히 증

가세를 보이고 있는 속초시는 2016년 상주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하여 안락한 전원도시를 꿈꾸고 있다.

속초시의 면적은 104.91㎢로 강원도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 전체 면적의 53.2%가 국립공원 설악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는 한국 관광의 중심도시로서 1999년에는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50일간 국·내외 관광객 226만명이 박람회를 관람함으로써 강원관광의 위상을 빛낸 바 있다. 또한 2000년 4월 28일에는 속초항에서 러시아(자르비노항)을 경유하여 중국(훈춘)으로 향해하는 카페리 직항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북방 관광·교역의 전진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Ⅲ. 속초의 지명(地名)



1. 연혁(沿革)
2. 지명 유래(由來)
3. 행정구역 중심의 지명(行政區域 地名)

Ⅲ. 속초의 지명(地名)

1. 연혁(沿革)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면(面)리(里)제가 실시되었는데, 지금의 속초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의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논산, 부월, 속초,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 하도문, 물치, 대포, 웅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하인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과 소천면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 부월, 논산, 노, 대포, 외웅치, 내물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장항리)로 이루어졌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이라 개칭하고, 1942년 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고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리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다가 한국 전쟁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



〈그림 2. 여지도서〉

년 8. 18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어 16개 법정리에 11개 연합리 사무소를 두었다.

1966년 12개동으로 개편되었으며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4개동 행정동 13개동으로 확정되었다가 1990년 사진동과 장천동이 장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도문동·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동, 행정동은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지명 유래(地名由來)

속초 지명에 관해서는 “뭍을 속(束)”, “풀 초(草)”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에 연관지어진 이름과 울산바위와 관련되어 지어진 이름이다.

〈영금정과 연관된 전설〉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 풍수지리적으로는 속초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울산바위와 연관된 전설〉

조물주가 금강산의 봉우리를 1만2천 개를 만들 계획으로 잘생긴 바위는 모두 금강산에 모이도록 했다. 울산땅에 있던 큰 바위도 금강산으로 길을 떠났는데 워낙 육중하여 지금의 울산바위 근처에서 하루를 쉬었다가 금강산에 가보니 벌써 금강산은 다 벗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울산바위는 하루를 쉬었던 곳에 머물기로 하였다.

그 후, 설악산 구경을 왔던 울산 고을 원이 신흥사의 중에게 울산바위는 원래 제 고을의 바위니 지세를 물라 하니, 해마다 지세를 물다 사찰의 형편이 어려워 지세를 주지 못하고 바위를 도로 울산땅으로 가져가라 하였다. 울산고을 원은 바위를 재를 끈

새끼로 묶어주면 가져가야겠다고 하니, 이에 청초호와 영랑동 사이에 자라고 있는 속새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바위를 동여맨 후 불에 태우니 곧 재로 끈 새끼처럼 만들어졌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은 더 이상 지세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청초호와 영랑호 사이가 한자로 “묶을 속(束)·풀초(草)”로 적는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

이상의 것은 모두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에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있다. 모두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문헌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속초리는 속새울, 속새굴이라고도 했는데, 속새가 많은데서 유래했다는 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속새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 많으므로 속새를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하여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지금도 나이 많은 토박이들은 속초를 속새라고 불렀음을 기억하고 있다.

3. 행정구역(行政區域) 중심의 지명

가. 영랑동(永郎洞)

영랑동은 1966년 동(洞)제 실시 전에는 속초리1구였으나 영랑호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이라고 하였다.

영랑동의 바닷가 마을은 ‘삽짜개’라고 하였는데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은 새쪽이라 하고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짜이라고 하여 새짜 마을의 뜻으로 삽짜개라고 불렀다.

나. 동명동(東明洞)

동명동은 속초리 2구였으나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뜻으로 동명동이라고 하였다.

속초의료원 뒷쪽 산봉우리에 동쪽을 향해 서있는 ‘관음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옛부터 이 곳에 관음보살이 나타났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 1952년 '관음'이라는 큰 글자를 새겨 넣었다.

보광사 옆 골짜기는 예전에는 절이 있어 '불당골'이라 불렀다.

'영금정(靈琴亭)'은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잇닿아 있고, 한쪽면이 육지와 닿아 있는 석산으로 일제 말기 속초항을 개발할 때, 이 석산을 파괴하여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나 영금정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영금정은 누대나 정자가 있어 영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석산 꼭대기에 괴석들이 정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파도가 석벽에 부딪칠 때면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데 석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이 거문고를 타는 것이라고 하여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녀들이 밤이면 몰래 목욕도 하고 신비한 노래를 부르며 즐기던 곳이라고 하여 '비선대(秘仙臺)'라고도 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비선대(秘仙臺)'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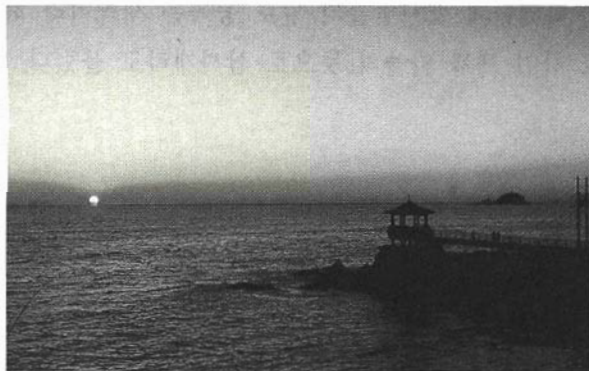
영금정 앞에 있는 바위는 멀치떼를 쫓아 들어온 오리가 많이 앉는다고 해서 '오리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명항'은 밝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고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속초에서 일출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속초항'이라고도 한다. '동명항 방파제'는 길이가 약 500m 정도 남쪽으로 뻗어있으며 방파제 끝에 등대가 있다.

동명항 방파제와 영금정 사이에는 1998년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건립한 영금정 '해돋이 정자'가 있는데 다른 정자와는 달리 바다 위에 세워진 해상 정자이다.

영금정 부근에 등대가 있는 산봉우리는 예전에 성황당이 있어 '성황봉'이라고 불렀다. 이 산에는 속초8경(八景)의 1경인 '등대전망대'가 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바닷가에는 '수복기념탑(收復記念塔)'이 있다. 이 탑은 1954



〈사진 24.영금정의 해맞이 정자〉

년 피난민들이 향수를 달래고 수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피난민의 회사금과 속초읍이 부담하여 건립하였다. 탑 위에 모자상을 새기고 탑에 모자상부(母子像賦)라는 글이 새겨 놓았었다. 그런데 지난 1983년 강풍으로 탑위의 모자상이 부서져 버렸다. 수복탑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에 의

하여 시민 성금과 시비로 복원하였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골짜기는 '우렁골', 법원, 검찰청과 속초 감리교회와 동명동 성당이 있는 골짜기 마을은 '장골', 또는 '장안골'이라 불렸으며,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들레에 성터의 흔적이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설 운동장, 중앙 시장 입구로 가는 고개는 '응고개', 구경찰서 뒷편 마을은 '촌말', 수복탑 쪽 마을은 '웃말', 등대 쪽 마을은 '아랫말' 그 중간에 위치한 마을은 '중간말'이라고 하였다.

다. 중앙동(中央洞)

중앙동은 속초리 3구였으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동이라고 하였다. 중앙 시장은 3구에 있다고 하여 '삼구시장'으로 불렸으며 시장이 있는 골짜기는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소가 있어 '용소골'이라고 불리던 것이 '용숫골'로 변화되었다. 공설 운동장 입구에서 중앙 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은 이 곳에서 짱치기 놀이(소나무 옹이로 공을 만들고 끝이 고부라진 나무나 지게 작대기로 짱채를 만들어 상대방 문에 넣는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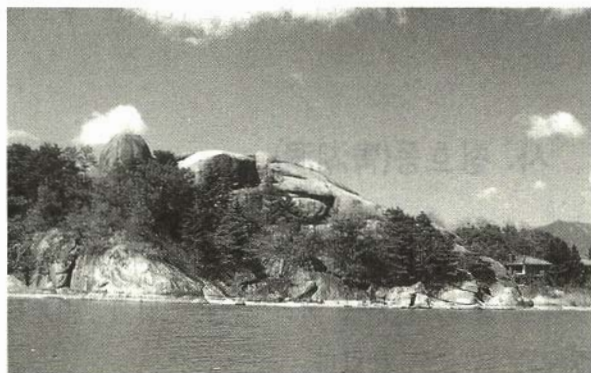
라. 금호동(琴湖洞)

금호동은 속초리 4구였다.

영랑호 남서쪽에 있는 큰 바위는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민간신앙 쪽에서는 성스러운 바위로여기고 있어 무당들의 가무가 끊이지 않고,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영랑동 남쪽 범바위 바로 옆에 '금장대(金將臺)'가 있다.



〈사진 25. 영랑호의 범바위〉

한국 전쟁 때 이 지방 수복에 공이 많았던 11사단장 김병휘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자는 간 곳 없고 시멘트로 만든 6각으로 된 기단부만 남아 있다. '금장'이라는 정자 이름은 '김병휘 장군'의 '김(金)'자와 '장(將)'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 청학동(靑鶴洞)

청학동은 속초리 6구였는데,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대형 상가의 형성으로 사라졌지만 이 곳에 있던 시장을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6구시장'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청학동에 '육구'의 상호명이 많은 것도 속초리 6구였기 때문이다.

바. 교 동(校洞)

교동은 속초리 6구였는데, 둘로 나누어 한쪽을 교동이라고 하였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에는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초등학교와 속초중학교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이라고 했다고 한다.

교동성당 부근은 '만천동(萬泉洞, 萬千洞)'이라고 불리었는데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과,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설명이 있다.

청초천 하류에 놓여 교동과 조양동을 연결하는 다리는 '쌍다리'라고 불리었는데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고 부르나 공식 명칭은 청초교이다.

사.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으로 청초호를 끼고 있어 반은 호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반부들'이라고 하던 것이 '반부덕'으로 변하고 한자로 써서 '반부평(半浮坪)'이라고도 불렀다.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청초호를 끼

고 있어 청호동으로 바뀌었다.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을 '갯배나루'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5구도선장이라고 했었다. 청호동 앞 바다에 있는 섬은 '조도(鳥島)'라고 한다. 우리말로 새섬이라고도 하는데 한때는 용초정(龍草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자는 헐리고 조그마한 등대만 서 있다.

아.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이라고 하였다. 조양이란 동명은 소야8경의 하나인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리에 아침 햇빛이 비치는 경관에서 따온 것이다.

1) 부월리(扶月里)

조양동의 중심 마을로 지금의 부월리와 청호동, 새마을이 부월리에 속했다.

순 우리말로는 '배다리'라 칭했는데, 이는 지금의 청호동과 중앙동 사이에 부교(浮橋)를 놓아 건너다녔다고 해서 생긴 마을 이름이라 한다.

부월리 안쪽 현재 조양초등학교쪽에 있는 마을은 이전에 연못이 있어 '연개'라고 하였다.

2) 온정리(溫井里)

온정리는 부월리와 논산리 사이에 있던 마을로 부월리에 속해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독립 되어 온정리가 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입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3) 논산리(論山里)

논산리는 부영아파트가 들어선 일대를 말하며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

입되었다.

논산(論山)이란 마을 이름은, 이 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피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이라고 표기한데서 유래한다. 논피를 논미로 발음하기도 한다. 논산리에서 중도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떡밭재' 라고 한다.

4) 청대리(靑垞里)

지금의 속초상업고등학교 일대를 청대리라고 하며 논산리에 속해 있다가 인구 증가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로 불리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조양동으로 편입되었다.

마을 뒤쪽에 청대산이 있어 청대리라 하였으며 '청대산'은 마을 남쪽 중도문리와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231m이다. 소나무가 무성하여 푸르름으로 청대산이라 한 것 같다. 또한 다른말로 "청두산"이라고도 부른다.

청대산 서쪽 봉우리를 산봉우리가 둥그스럼하게 생겨서 '두루봉'이라고 부른다.

청대리 마을 한가운데를 '매자'라고 하며, 현재 속초상고가 들어선 골짜기를 '산지당골'이라 하는데 이전에 산제사를 지내던 산신당, 산제당이 있어 산제당골이라고 하던 것이 산지랑골로 변화되었다.

자. 대포동(大浦洞)

대포리에 외옹치리와 내물치리가 합쳐져 대포동이 되었다.

1) 대포리(大浦里)

큰 포구라는 뜻으로 '한개'라고 부르던 것을 한자로 대포라고 표기한데서 유래되었다. 또 외옹치리가 독재(독바위 부근의 고개길로 추측되나 어느 고개인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예전에는 중요한 통로였으나 새로 생긴 동쪽 해안 길을 이용함에 따라 사라져 간 지명)라는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밖독재'라고 하는데 대하여, 대포리는 독재의 안쪽(육지쪽)에 있다고 하여 '안독재', 또는 독재 밑에 있는 큰 마을이라고 하여 '큰독재'라고도 하였다.

대포는 일제시대에는 상당히 큰 항구였고 1937년까지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다.

대포리에서 중도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나무꾼들이 쉬어갔다고 해서 '나무남재'라고 하였으며 예전 대포재건학교 뒤에 독처럼 생긴 큰 바위는 '독바위' 또는 '병풍바

위', '화랑탑' 이라고도 한다.

대포 북쪽에 솟아 있는 산은 '마산재' 라고 하는데 말처럼 생겼으며 산 위에 옛 성터가 있고 '마성대' 라고도 한다. 대포 서쪽에 있는 저수지는 '방축', 대포에서 남쪽 물치 쪽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마을은 '산두꾸미' 대포 나룻가에 있는 마을은 '아랫말', 대포초등학교 쪽에 있는 마을은 '웃말', 대포 고개 밑에 있는 마을은 기와집이 많아 사투리로 '지와집골' 이라고 하던 것이 '제집골' 로 변화였다. 대포 서쪽에 있는 골짜기는 '큰골', '회평골' 로 불리는데 현재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2) 외옹치리(外甕峙里)

새마을과 대포사이에 있는 바닷가쪽 마을로 '밭독재' 라고 불리어졌고, 조선 시대는 옹진리였으나 일제시대부터 외옹치리로 바뀌었고, 1966년 동계 실시 때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외옹치항' 은 대포항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으며, 1980년대 개발된 소규모의 항구로 활어판매장이 있고 가리비 생산항이다. 속초에서



〈사진 26. 외옹치항〉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관광 휴양지로, 해맞이 장소로, 해양박물관 건립 등 관광 개발 잠재력이 무한한 항구이다. 외옹치 새마을 쪽에서 대포 고개로 빠지는 길목 일대는 '기른네미' 라 하였으며 외옹치에서 대포로 가는 해변가에 있는 큰 바위는 덕이 있게 생겼다고 해서 '덕대바위' 또는 한자로 표현하여 '덕대암' 이라고도 한다.

현재 군부대가 들어서 있는 곳은 조선 시대 덕산 봉수가 있었던 터라하여 '봉수터', '봉화터' 라 불린다. 또는 설악산에서 동쪽으로 뻗은 봉우리가 달마봉,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이 곳에서 끝난다고 하여 '봉끝' 이라고도 한다.

새마을 쪽으로 향하는 마을 입구의 논이 있는 일대는 '일곱매끼' 라 일컬으며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있는 일대는 '장승거리' 라고 한다.

3) 내물치리(內勿湍里)

설악산 입구 마을을 말하며 대포동에 포함되었다.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도문동을 거쳐, 물치에서 동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을



〈사진 27. 내물치항〉

'쌍천'이라 하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를 이룬다. 하류 물치 부근에서 두 가닥으로 나뉘어져 흐르기 때문에 쌍천이라고 한 것 같다. 마을 남쪽으로 쌍천 못미쳐 있는 작은 시내는 '군개'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군더더기 개(시내)라는 뜻이다.

쌍천 하류에 놓여 속초 대포동 내물치리와 양양 강현면 물치리를 연결하는 다리는 '쌍천교'로 일명 큰다리라고도 한다. 마을

서쪽에 있는 조그마한 산은 '안가산'이라고 한다. '옹구점마을'은 옹기를 굽던 마을로, 현재 관광안내소 옆 설악 해맞이 공원 자리에 있었다. '유물재비'는 조선 후기 이 고장에 거주한 유명한 학자 물재 유희일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다. 원래는 새로 조성된 마을 한 가운데 있었으나, 마을이 조성될 때 현재 자리인 일출봉 횃집 뒤 철길 옆으로 옮겨졌다. 바닷가쪽으로 속초8경(八景)의 하나인 '설악 해맞이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잼버리 기념탑과 조각공원 및 관광안내소가 있어 관광객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차. 도문동(道門洞)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고 하여, 그 관할하에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도문은 동리 이름이자, 동시에 면 이름이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도문면과 소천면이 합쳐져서, 오늘날 속초시의 전신인 도천면이 되었고, 동시에 상도문리와 하도문리 중간에 행정상 중도문리가 신설되었다. 그 후 1963년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1966년 동계를 실시할 때, 상도문리가,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서 도문동이 되었다.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닫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 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고 하여 도문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 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고 설명하면서, 이곳에서 길을 물었으므

로 이곳을 도문(導門)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 하여 도문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뜰을 '도문뜰' 또는 '도문평'이라고도 한다.

1) 상도문리(上道門里)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를 '그망골' 또는 '거망동'이라고 한다. 이는 상도문리는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는 그물을 드는 형국이므로 한자로 표기하여 거망동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그망골이 되었다.

상도문리 동쪽에 웅기점이 있었던 마을을 '웅구점말' 일명 '토기점'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웅구점말 입구 쌍천가에 있는 바위는 벼락을 맞아서 크게 갈라져 있다고 해서 '벼락바위'라고 부른다.

상도문리는 풍수지리적으로 행주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는 배의 돛대에 해당하는 형국이므로 '돛대골'이라고 하던 것이 변화하여 '소태골'이 되었다고 한다.

웅구점말(행정상 상도문리 2구)과 노학동을 연결하는 고개는 '싸리재'인데 사리재라고 하던 것이 싸리재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리는 구불구불한 것을 가리키는 우리 고어이다. 따라서 사리재는 구불구불한 고개라는 뜻으로 사리라고 부르던 것이 고개 '재'가 합쳐져 사리재가 되었고, 그것이 그 후 발음상 싸리재, 살인재로 변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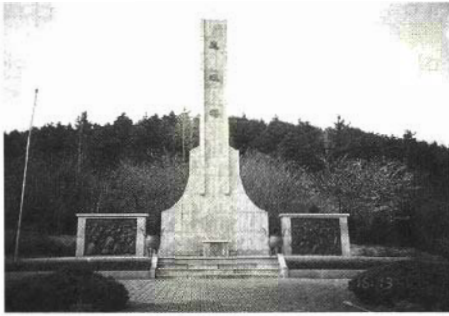
마을 앞(남쪽) 소나무 숲에 있는 육각으로 된 정자는 원래 '학무정'이나 '육모정'이라고도 하며, 속초8경(八景)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서북쪽 척산리와의 경계에 해발 338m의 봉황의 형국의 '주봉산'이 있는데 지도에는 주봉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주위에서는 모두 '주왕재'라고 말한다.

2) 중도문리(中道門里)

중도문리 1구의 다른 이름은 '골말'인데 골짜기 마을이란 뜻이며,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는 '대랑골'인데 뒤쪽을 나타내는 뒤우란골-뒤란골이 변화된 것이다.

중도문리 2구의 벌판 마을이란 뜻으로 '벌말'이라고 하며 아랫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중도문리 1구는 위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윗말'이



〈사진 28. 충혼탑〉

라고도 한다.

하도문과 경계에 미국 오리건주 그레삼시와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매시 기념공원'이 있고, 옆쪽에 속초시 출신의 전몰 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혼탑'이 있다.

3) 하도문리(下道門里)

하도문을 '송정리'라고도 부른다. 산기슭 밑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양짓말'이라고 하며 하도문 입구에 있는 마을은 '건너말'이라고 한다. 마을 서북쪽 골짜기는 과거에 고씨와 양씨가 살았다 해서 '고양터'라고 부른다.

쌍천가에 있는 소는 도깨비가 자주 나타났다고 해서 도깨비소라고 하던 것이 '도깁소'로 변화되었다.

카. 설악동(雪嶽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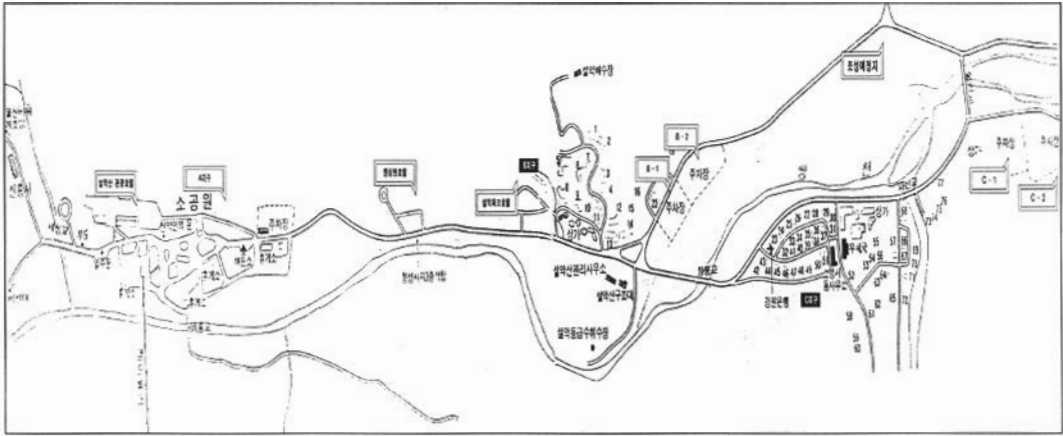
1966년 동제 실시 전에 설악동은 '장항리'라 하였으며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를 포함하게 되었다.

종래의 이름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장항(獐項)에서 온 것으로, 이전에는 노루목을 중심으로 향성사지 3층석탑 일대인 탑(塔)벌, 비룡교 건너편 소토왕골 입구인 토왕성(土旺城), 정고평(丁庫坪) 등지에 민가가 있어서 장항리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은 그 모습이 많이 변화였다.

1) 설악 관광단지 일대

설악산 관광 단지 일대는 신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현재의 소공원 자리에 있었던 관광단지를 '구(舊)단지' 또는 'A지구'라고 하며, 1976년 설악산 국립 공원 개발 계획에 의해 구단지의 여관, 상가가 철거되고 그 밑(동쪽)에 새로 조성된 관광 단지를 '신(新)단지'라 한다. 신단지는 노루목 일대의 'B지구'와 종래에 '핏골'이라고 부르던 'C지구'로 구분된다.

소공원에서 비선대로 가는 중간에 있는 벌판을 '정고평(丁庫坪)'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3. 설악동 신집단시설지구 계획도〉

전에 마등령으로 넘어다닐 때 백담사의 굽집(창고)가 있었으므로 정고라고 한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고평과 소공원 사이에 있는 벌판은 '군량장(軍糧場)' 이라고 하는데 비석 형태의 자연석에 군량장이라고 새겨져 있으며 예전에 군인들이 양식을 저장 하던 곳이다. 군량장에 있는 큰 바위를 '군량암' 이라 하는데 바위 모양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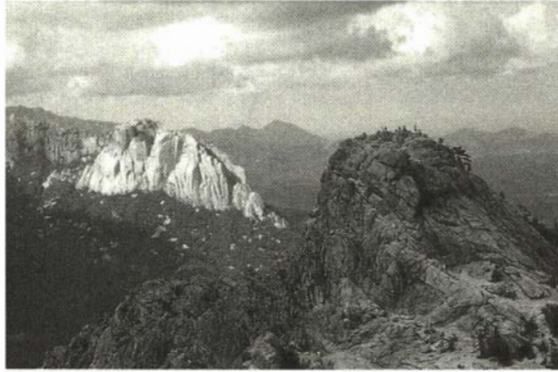
소공원에서 비선대 쪽으로 가다가, 군량장을 지나서 정고평 못 미쳐 나오는 벌판을 '치마장' 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말을 기르던 곳으로 추정된다.

향성사지 3층석탑 일대의 벌판, 즉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를 '탑벌' 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민가가 있었다. 케이블카 바로 밑 쌍천에 놓인 다리인 '비룡교' 건너편 소토왕골에 있었던 마을은 '토왕성리' 라 한다.

정고평에 한국 동란 때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젊은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인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가 있다.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뒷산 중턱에 있는 네모난 큰 바위가 있는데 옛날에 도적들이 이 바위에서 망을 보면서 주위를 살펴 부근을 지나가던 장사꾼이나 행인들의 물건을 털었다고 해서 '망바위' 라고 한다.

현재 B지구 일대,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를 '노루목' 이라 하며 신단지 B지구에서 구단지로 넘어가는 파크호텔 앞에 위치한 낮은 고개를 '노루목 고개' 라 한다. 이 고개에서 장항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고개를 순수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로 장항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를 '목우(牧牛)재' 라 한다.

신흥사 앞 냇가는 '세심천(洗心川)' 으로 쌍천의 한 줄기가 된다. 부처님이 계시는



〈사진 29. 권 금 성〉

성지 신흥사 입구에 있으므로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에서 세심천이라고 하였다.

'권금성(權金城)'은 소공원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해발 860m의 험준한 돌산에 있는 옛 성터로, 지금은 그 돌산 일대를 권금성이라고 부른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

2)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북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長者) 즉 부자(富者)가 살았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고 불리어진다. 장재터 별판을 '장재평'이라 한다. 마을 서남쪽 골짜기는 말을 묶었던 골짜기라는 뜻으로 '마무골'이라고 하며 마무골 서쪽 골짜기는 '물안골'이라고 한다. 이는 물레방아가 있었으므로 물방아골이라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한다.

타. 노학동(蘆鶴洞)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자와 척산리 학사평(鶴沙坪)의 '학'자를 딴 것이다.

오늘날의 청초천인 소야천 주변 일대의 별판을 예전에는 '소야평야' 또는 '소야뜰'이라고도 했다. 노리, 도리원리 마을 앞(남쪽)에 있는 넓은 들을 '앞버덩'이라 하였다.

모두 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과거에는 습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 소야평야라고 한 것은 주로 이 앞버덩을 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노리, 척산리, 신흥리에 걸쳐 있는 넓은 버덩(높고 평평하며 잡풀만 많은 거친 들판)은 노리에서 볼 때, 마을 뒤에 위치한 버덩이므로 '뒷버덩' 한자로 '후평(後坪)'이라 하였다.

설악산 달마봉에서 시작되어, 노학동을 거쳐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을 '청초천(靑草川)'이라 하는데 예전에는 '소야천(所野川)'이라고 했다. 하류에 쌍다리가 있어서 쌍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쌍천은 설악산에서 시작되어 도문동과 내물치 앞을 거쳐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1)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노동, 노동리라고도 했다. 이전에는 행정상 노학동 지역 전체를 관할했으나,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될 때, 인구 증가에 따라 노리가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로 나뉘어졌다. 그러다가 1966년 동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지역이 합쳐져서 노학동이 되었다.

현재는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에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노동, 노동리, 노리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2) 응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로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두가지 설명이 전해온다. 하나는 마을이 청대산, 두루봉 등 앞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님이 시주를 왔을 때, 스님의 시주에 잘 응해 주었다고 하여 응골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 서쪽 척산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골짜기를 '사당골'이라고 한다

3)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 지역 동북쪽 지대에 위치한 마을. 본래 노리에 속하였으나, 인구 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으로 합

쳐졌다. 한자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유래에 대하여는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고 하나, 그것보다는 도리원이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의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4)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로 표기한 것이다.

마을 입구에서 왼편(서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돌배나무가 많았었기 때문에 ‘돌배나무골’이라고 하는데 동우대학 뒷편에 해당된다.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내를 ‘샘골천’이라고 하는데 1972년 제방 축조 공사 때, 당시 강원도지사였던 박경원씨가 샘에서 나오는 물이므로 깨끗하다고 하여 샘골천이라고 하였다.

마을 북쪽 골짜기를 ‘장자골’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자, 즉 부자가 살았다는 얘기는 없고, 토지가 비옥하여 벼농사가 잘 되므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장자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설명한다. 일명 ‘장재골’이라고도 부른다.

5) 척산리(尺山里)

이전에는 척산도 노리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하여 척산리라고 하다가, 1966년 동계 실시 때 다시 합쳐져서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으며, 온천이 개발되어 척산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척산(尺山)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몇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는 농사철에 마을 뒷(남쪽)산의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시간을 재었으므로 그 산을 척산이라고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마을 뒷산이 마치 곡척이라는 둥근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이라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동네 사람들이 길쌈을 많이 하여 옷감이 마치 산처럼 쌓인다고 하여 척산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마을 서쪽 학사평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을 ‘가매소 개울’이라고 하는데 마을

입구에서 목우재 개울과 합쳐 청초천을 형성한다. 마을 서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가매소 개울 입구에 있는 소를 '가매소'라고 하는데 소의 모양이 가마솥처럼 생겼다.

주봉산과 목우재 사이에 있는 산을 '명가산'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면(面)의 가산(家産), 즉 재산이라는 면가산이 변해서 명가산이 되었다고 한다.

'목우재 개울'은마을 남쪽 목우재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개울로 마을 입구에서 가매소 개울과 합쳐져 청초천을 형성한다.

가매소 개울 남쪽 마을을 '양짓말'이라 하고 가매소 개울 북쪽 마을을 '응달말'이라 하였다.

목우재와 달마봉(소공원 북쪽에 우뚝 솟은 해발 635m의 봉우리. 산봉우리가 달마대사의 모습으로 둥글둥글하다고 하여 달마봉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사이에 있는 터를 '파명당'이라고 하는데 현재 송신탐이 세워져 있다. 전설에 의하면, 명당자리가 탐이 나서 파보니 그 곳에서 학이 3마리가 나와 한 마리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普光寺) 쪽으로, 또 다른 한 마리는 학사평(鶴沙坪)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마을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는 옛날에 암자가 있었으므로 '암자골', '암지동'이라고 하였다. 암지동에서 갈라진 골짜기는 탐이 남아 있어 '탐상골'이라고 한다.

6) 신흥리(新興里)

5·16군사 쿠데타 후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이주해 와서 뒷버딩에 새로 일으킨 마을로 지금의 삼성 콘도 일대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1963년 동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으나 신흥리라는 지명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학사평 끝(서쪽) 마을을 '상에동네'라 하는데 이는 새로 집단 이주해 온 사람들이 건설한 마을이므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사평에 소속되지 않고, 신흥리에 소속되었으며, 신흥리 위쪽(서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신흥상(新興上), 또는 상에, 상에동네라고 불려짐.

7)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 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 자 대신 '학' 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하였다고 한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밭이라고 한다.

자활촌은 학사평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5·16군사정부에 의해 깡패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모아서 학사평 벌판에 집단 이주시켜 농토, 농기구 등을 주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였으므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자활촌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학사평 남서쪽 골짜기를 '명당골'이라 하며 마을 남서쪽, 명당골 서쪽 골짜기는 '심방골'이라 하며 달마봉으로 이어진다. 속초와 인제를 연결하는 고개를 '미시령'이라 하는데 다른 말로는 '미시파령', '큰령'이라고도 한다.

파. 장사동(章沙洞)

고성군 토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나 속초의 발전에 따라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글자를 따서 장사동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1) 사진리(沙津里)

장사동 횃집 일대와 속초고등학교 부근의 마을을 일컫는다. 이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닌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이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불리어졌고, 한자로는 사야지(沙也只),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부터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리어졌다.

'사진항'은 장사동에 있는 소규모 어항으로 방파제 90m 어선 30척을 보유한 전형적인 어촌이다.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은 강장군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해서 '강장군산(姜將軍山)'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역시 용촌리 용지호에서는 강장군이 탄 용마가 나왔다고 한다.

영랑호 동쪽에 있는 바위는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옛말)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빳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형상이 윤선(輪船) 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 바위'라고도 한다.

속초고등학교 뒷 골짜기는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하여 '서낭골'이라 하며, 해경층혼탑이 위치한 산은 산의 남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어 '서낭산'이라 한다.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 '엄달개'라고 하는데는 엄달이라는 이름의 갯가라는 뜻이다.

마을 북쪽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연결되는 큰 고개는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2) 장천리(章川里)

영랑호 서쪽 마을로 장천의 '노루장'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나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하다가 장천(章川)으로 변한 것이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해발 84m의 산봉우리는 '국사봉(國師峰)'이다. 영랑호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국사봉이다. 국사봉, 또는 그것과 발음이 비슷한 이름은 전국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서낭신을 제사 지내는 서낭당, 성황당, 즉 굿사당에서 유래된 것이다. 국사봉은 지금도 민속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사봉을 다른 말로 발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붓같이 수려하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라고도 한다. 또 사진리에서는 '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된, 즉 뒤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IV. 속초의 문화(文化)



1. 문화재(文化財)
2. 민속(民俗)
3. 설화(說話)
4. 방언(方言)
5. 교육(教育)

IV. 속초의 문화(文化)

1. 문화재(文化財)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 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의 문화를 바르게 알자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향토의 문화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조상의 얼과 슬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문화를 가꾸는 마음으로 승화되고 있다. 여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있다. 1982년 12월 전면 개정된 법률에서는 문화재를 4가지로 정의 및 분류하고 있다.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古文書)·회화(繪畫)·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記念物)

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요지(窯址)·궁지(宮址)·유물 포함층(遺物

包舍層) 등의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상·관상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식물·광물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 민속자료(民俗資料)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推移)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같은 법률에서는 이들 중에서 지정문화재라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속초 지역의 문화재(유적과 유물)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표2〉 속초시 소재 지정문화재

구 분	종 별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지 정 일 자
국가지정 (4)	보 물	제443호	향성사지 3층석탑	1966. 8. 25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965. 11. 5
		제351호	설악동의 소나무	1988. 4. 30
	사 적	제376호	조양동 선사유적지	1992. 10. 6
도지정 (8)	유형문화재	제 14 호	신흥사 극락보전	1971. 12. 16
		제 15 호	신흥사 경관	1971. 12. 16
		제 85 호	도문동 김종우 가옥	1985. 1. 17
		제104호	신흥사 보제루	1985. 9. 13
	문화재자료	제 7 호	신흥사	1984. 6. 2
		제 64 호	도문동 김근수 가옥	1985. 1. 17
		제115호	신흥사 부도군	1991. 2. 25
		제127호	노학동 3층 석탑	2000. 1. 21

가. 조양동 선사유적지(사적 제376호)

속초시 조양동 산142번지에 자리한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기원전(B.C) 7~8세기 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시대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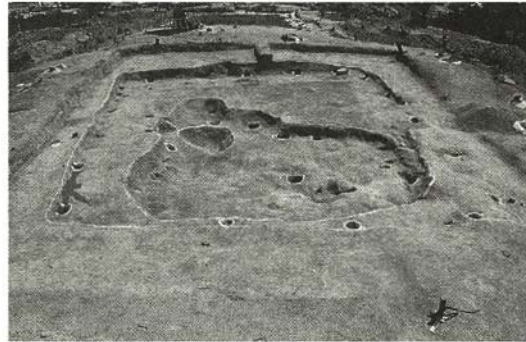
조양동(溫井里)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1992. 5. 22

~7. 31)시에 3호 주거지가 있던 터에서 출토된 굽손잡이그릇은 우리나라 동북 지방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의 말기 유적인 함경북도 무산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사한 것인데 현재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되어 신석기시대의 말과 청동기시대 초기에 있어 동북지방과 강원영동 지역간의 문화교류를 확실하게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빗살무늬, 민무늬 토기 등 16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교체되는 시기의 유물로 인정되어 1992년 10월 6일 사적 제376호로 지정되어 있다.

1) 집자리

청동기시대의 집자리는 하천이나 평야에서 가까운 낮은 야산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조양동 선사유적지의 집자리 7기가 청초호 주변 평야 지대의 낮은 야산에 있다.

집자리 형태는 모두 장방형 모양으로 크기는 약 7, 8.5, 10.1, 11.5, 11.9, 16.3, 23평 등으로 다양하고 집 가운데에는 화덕자리가 있는 집도 있다.



〈사진 30. 청동기시대 집자리〉

2)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검을 매장하는 위치와 받침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크게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등으로 나눈다. 조양동 고인돌 2기 중 하나는 덮개돌이 한쪽으로 내려앉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덮개돌을 제거한 후 고인돌 아래 구조 중 한쪽의 받침돌과 석곽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고 바닥은 할석으로 깔았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의 고인돌은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북방식 고인돌로 추정된다.

3) 유물(遺物)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은 약160여 점으로 가장 많은 것이 토기편과 석기류들이다. 그리고 고인돌에서 발견된 부채꼴주머니도끼 1점이 발견되었다. 이 도끼

는 수장이 갖는 지휘봉(휘장)으로 상징되는 것인데 이 일대에는 상당한 주거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토기(土器)

토기의 대부분은 신석기시대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구멍무늬토기,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었고, 또 고기를 잡는데 사용하는 흙그물추, 실을 만드는데 사용한 흙가락바퀴 등이 발견되었다.

나) 석기(石器)

석기의 용도는 주로 사냥과 농경, 어로, 그리고 실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발견된 석기로는 돌화살촉, 돌창, 돌도끼 등이 있고, 농경에 사용된 반달모양의 돌칼, 어로에 사용된 돌그물추, 실을 만드는데 사용한 돌가락바퀴 등이 발견되었다.

나. 설악동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1호)



〈사진 31. 설악동소나무〉

속초시 설악동 20의 5번지에 위치한 이 소나무는 수령이 500여 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약16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4m, 가지 퍼짐은 동서로 21m, 남북 19m 이다. 줄기는 지상 2.5m에서 세 가지로 갈라져 있었으나 남쪽과 북쪽의 두 가지는 죽고 중앙의 가지만 살아 있다. 소나무는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4거리에 위치하는 서낭당 나무로서 잘 보전되어 있다. 옛날에

이곳을 지나면서 나무 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쌓아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설악동 소나무는 1988년 4월 30일에 천연기념물 제35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다. 가 옥(家屋)

우리나라 민가는 그 지역의 기후 조건, 재료 등에 영향을 받아 각기 지방에 따라 독

특한 형식을 이루며 발전해 왔다.

우리 지방의 가옥은 북부형 가옥으로 모든 공간을 옥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적으로 혹독한 추위에 대한 방한적 효과를 꾀한 것이다.

이런 가옥으로 잘 보존된 곳이 김종우, 김근수 가옥 등이 있다.

1) 김종우 가옥(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에 위치한 이 가옥은 평면으로 볼 때 ㄱ자의 함경도형의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홑처마 팔작기와 지붕 형식이다. 본채와 부엌 그리고 마구간채가 ㄱ자로 연결되어 있다. 마구간은 윗 부분은 다락으로, 아랫부분은 외양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 32. 김종우 가옥〉

건립 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8세기 중엽에 건축되었다고 전해진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다.

2) 김근수 가옥(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4호)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번 1504번지에 위치한 이 가옥은 구조는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함경도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있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기와이다.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와에 도광 5년(1825년)이라는 명문이 있고, 건륭 27년(1762년)이라는 숫기와의 발견되어 연대를 추정할 뿐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다.



〈사진 33. 김근수 가옥〉

원래는 집의 전면에 행랑채, 좌·우 고간채와 사랑채가 있는 대가옥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안채 부분만 남아 있다.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64호 지정되어 보호하고 있다.

라. 권금성(權金城)

적군의 침입이나 보호할 대상을 지키기 위해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린 것을 성이라 한다. 성은 지형에 따라 산성, 평지성, 평산성 등으로 구분한다. 산에 위치하는 성을 산성이라 하는데 산의 정상을 중심으로 하여 7~8부 능선을 따라 거의 수평 되게 한 바퀴 둘러쌓은 것을 산정식(테피식)이라 하는데 권금성이 바로 같은 예이다.

이런 산성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단기 전투나 보호할 대상을 지키기 위한 성이라 할 수 있다.

권금성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한 산성으로 비교적 진입하기 쉬운 부분에만 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남아 있는 석성의 총길이는 약 90m 정도이고, 북쪽에서 직선으로 올라오는 곳에는 케이블카 설치 등으로 인하여 석성의 상당 부분이 파손된 상태이다. 권금성의 현재 남아 있는 석축의 규모는 북쪽 성벽이 길이 약 30m, 폭 1.9m, 높이 3m로 남아 있고 남쪽은 길이 약 39m, 폭 2.4m, 높이 약 2.6m, 서쪽 성벽 길이 약 20m, 폭 약 2m, 높이 약 3m로 남아 있다. 권금성은 양벽을 돌로 축조한 성벽으로 기단석축 없이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할석으로 쌓았다.

몽고 침입시 권씨, 김씨 등 두 장군이 백성들을 이 성에 피난시켜 난을 피하게 하였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마. 덕산봉수(德山烽燧) : 외옹치 봉수터

봉수는 나라에 병란이 있을 때에 하던 신호불이다. 주요한 산정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신호하였다. 평상시에는 한번, 적이 보이면 2번, 적이 국경에 가까이 오면 3번, 침범하면 4번, 싸우면은 5번을 올렸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봉수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특사가 뛰어가서 전했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600여곳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덕산봉수대라 생각된다. 덕산봉수는 대포동 외옹치리 해발 약 47m 높이의 구릉 끝 부분에 위치했다. 현재 봉수대는 거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고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덕산봉수는 “남쪽으로 양양의 수산봉수와 연결되었고 북쪽으로는 고성군의 죽도봉수와 연결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도 외옹치리에 봉수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불교 문화 유적

1) 신흥사 (新興寺)

신흥사는 설악산과 더불어 수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事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7년(653)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왕명을 받아 지금 켄싱턴호텔 자리에 향성사(香城寺)라는 절을 창건하였으며, 앞뜰에 九層塔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향성(香城)이라는 이름은 “중향성불토국(衆香城佛土國)”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그러나 향성사(香城寺)는 효소왕 10년(701)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가 향성사(香城寺)의 부속 암자인 능인암(현 내원암 자리)터에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번창하던 선정사(禪定寺)는 조선 인조 22년(1644)에 또 불에 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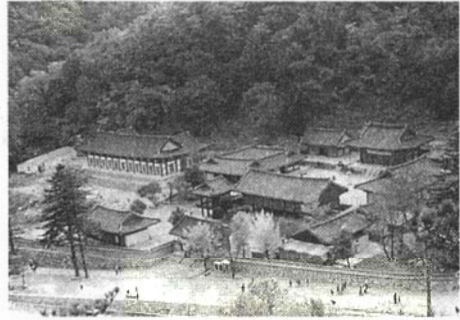
이듬해에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아 옛 향성사(香城寺) 뒤의 소림암(小林庵) 터(현재의 신흥사위치)에 새 절을 창건한 것이 오늘의 신흥사(원래는 神興寺였으나 1995년 新興寺로 고쳤다)이다.

절 이름을 신흥사라 한 것은 영서, 혜원, 연옥 세 스님이 절의 재건에 매진하고 있을 때 세 스님 모두의 꿈에 백발의 신인(神人)이 출현하여 현재의 신흥사 터를 영원토록 3재(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준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통치의 수단으로 우리나라 사찰을 31본산(本山)으로 묶었을 때 31본산 가운데 하나인 건봉사(乾鳳寺)의 말사(末寺)로 있었으나, 1971년 건봉사 대신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신흥사에는 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그중 지정문화재로는 향성사지3층석탑이 보물 제443호, 극락보전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경판(經板)이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보제루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가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신흥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청동석가여래좌상(靑銅釋迦如來座像)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진 34. 신흥사〉

높이가 58척으로 동양 최대규모의 청동좌불상이다.

2) 신흥사 부도군 (新興寺浮屠群)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5호)



〈사진 35. 신흥사부도군〉

신흥사 부도군은 1991년 2월 25일 강원도가 문화재자료 제115호로 지정한 불교 문화재로 원래는 <雪嶽山 新興寺>라 써 있는 일주문(一柱門)을 지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던 것을 1996년 여름 소공원 매표소 앞으로 이전하여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부도 19기와 비석 6기 등의 25기의 석조물이 130평

정도의 편평 대지에 서쪽을 향해 구성되어 있다.

월암당탑(月岩堂塔), 대원당탑(大圓堂塔), 소련당탑(笑蓮堂塔), 해암거사탑(海岩居士塔), 벽담당탑(碧潭堂塔), 불공탑(不空塔), 요원당탑(遙圓堂塔) 등의 부도와 비(碑)가 한 곳에 모여 있어 부도군(浮屠群)이라고 한다.

부도(浮屠)란 승려의 사리탑(舍利塔 Sarira)을 일컫는 것으로 부도가 불가에서 승배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의 중심은 될 수 없기에 사찰의 경내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에 건립하는 것이 통례이며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3) 보제루(普濟樓)(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신흥사의 사천왕문(四天王門)과 본전(本殿)인 극락보전(極樂寶殿)과의 사이에 있는 장방향(직사각형)의 큰 누각이다.

섬돌로 쌓은 2단의 축대위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정면 7칸(間)22.4m, 측면 2칸(間)8.5m의 다락마루가 놓였으며 홑처마 맞배지붕 형태이다.

영조46년(1770)년에 세워진 것으로 누각(樓閣)식으로 아래층 가운데 칸은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위층은 다락으로 되어 있으며, 공간의 높이는 사천왕문보다는 높게, 본전보다는 낮게 구성되었다

건물 안에는 직경 6척 비자(櫃子)나무통과 누런 황소 6마리 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법고(法鼓 : 법을 전하는 북)와 목어(木魚)가 보존되어 있다. 특히 네 벽에 시판(詩板)과 추사(秋史)의 친필이 유명하다.

〈지붕건축양식 사진〉



〈사진 36. 맞배지붕〉



〈사진 37. 팔작지붕〉

4) 극락보전(極樂寶殿)(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호)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모신 신흥사의 본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기와 지붕의 다포 양식의 건축물이다.

조선 인조 25년(1647) 영서(靈瑞), 연옥(蓮玉), 혜원(惠元) 세 스님에 의해 창건되었고 몇 번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최근인 1977년에 다시 보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극락보전으로 오르는 석조 계단은 하나의 돌로 된 층계로 영조37년 홍징(弘徵), 홍운(弘運) 등이 쌓았다

1977년 보수할 때에 세 단계로 개조하였고, 맨 밑 계단 양쪽에 용의 머리를 조각하였고 옆면에는 귀면상을 조각하였다. 축대정면 왼쪽에는 길상초(吉祥草)와 사자상이(獅子像) 조각되어 있다.

현재 극락보전 안에는 경판(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이 보관되어 있다. 극락보전은 극락전, 아미타전, 무량수전이라고도 한다.



〈사진 38. 신흥사 극락보전〉

5) 신흥사 경판(經板)(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호)

경판이란? 부처님께서 따르는 제자와 중생을 상대로 설교하신 내용을 기록한 “경(經)”을 담아 놓은 광주리란 뜻이다. 경판은 처음에는 종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므로 대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였으나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없었으므로 뒤에는 목판에 조각하게 되었다.



〈사진 39. 신흥사 경판〉

신흥사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불경을 비롯하여 불교 관계 문헌을 새긴 목판으로 대형과 소형 2가지 크기로 모두 280장이 보관되어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법화경”을 비롯하여, “부모은중경”, “반야심경주” 등의 대승경전과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식당작법”, “운수단가사” 등의 불교의식 관계 문헌, “광본대세경”, “조왕경” 등의 다라니경 끝으로 “대원집” 같은 고승문집 등이 있다.

6) 향성사지 삼층석탑(香城寺址三層石塔)(보물 제443호)



〈사진 40. 향성사지 3층석탑〉

자장율사(慈裝律師)가 건립했다는 이 석탑은 현재 켄싱턴호텔 앞 갖길에 위치하며 1966년 8월 25일 보물 제 443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이다.

이 석탑은 정부의 복원 계획에 의하여 1966년 해체되었을 때 공사감독을 했던 김주태 문화재전문위원의 기록에 의하면 3층 옥신석의 중앙에 7cm의 사리공(舍利孔)으로 생각되는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그 위에 동판 1매가 덮혀 있었으나 내장물(사리공구)은 도난 당했음인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절터에서 발굴당

시 암막새, 숫막새, 기와 등 5점이 출토되어 현재 단국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반 침하로 석탑 정밀 실측 해체 및 보호를 실시하였다.

향성사는 신라 진덕여왕 7년(653) 자장율사에 의해 지금의 켄싱턴호텔 자리에 창건되었지만 반세기만인 효소왕 10년(701)에 불에 타버렸다. 그 향성사 절터에 남아있는 3층 석탑이므로 지금 향성사지3층석탑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 탑은 정사각형의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전형적인 신라 석탑이다. 8매의 장대석으로 구축된 지대석 상면에 상·하 2층기단을 놓았는데 하층기단에는 양쪽에 우주(隅柱)와 가운데 탕주(撐柱)가 조각되어 있고 상층기단 면석은 8매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는데 각 면에는 양쪽에 우주와 가운데 탕주 2기가 모각(模刻)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 1개의 돌로 만들었는데 매층 탑신에는 양쪽에 우주가 정연히

모각되어 있고 옥개석의 밑면은 5단의 옥개받침이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의 지붕모양처럼 생긴 곳을 낙수면이라 하는데, 낙수면의 경사는 완만하며 추녀는 약간의 처 올라감(反轉)을 보이고 있어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매층마다 2단의 탑신받침을 조각하고 있으며 탑의 상륜 부분에는 노반석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다.

이 탑이 지닌 전체적인 양식으로 볼 때 9세기 전반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동해안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신라 석탑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 속초 노학동 3층석탑(束草蘆鶴洞三層石搭)(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27호)

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골짜기의 등산로를 따라 개울 오른쪽으로 약30분 정도 산을 오르면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석탑 1기가 있다. 이곳에서는 석탑 1기와 석축 및 여기저기에서 기와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지(寺址)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 중에서 높이 127cm 의 3층석탑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 석탑은 안상(眼象)이 새겨진 기단부에 탑신부는 1층 탑신, 1층 옥개석, 2층 옥개석, (2층탑신은 없음) 3층 탑신, 3층 옥개석 그리고 노반석이 각각 1매인 돌로 되어있다.

1층 탑신의 4면에는 양 우주 및 사방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살필 수 없지만 안정감 있게 조각 되어있다

3층 옥개석 위에는 반 정도가 파괴된 노반석(露盤) 및 지름 5.5cm, 길이 1.5cm의 원형 구멍(찰주공)이 있다. 이 석탑은 영동지방의 석탑 중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것이며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1월 21일부로 강원도 문화재자료 127호로 지정되었다.



〈사진 41. 노학동 3층석탑〉

2. 민속(民俗)

가. 속초 민속의 개관과 실제

민속이라 함은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고 생활속에 정착되는데 한 지역을

구성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 구성원들에 의해 특수한 모습으로 잔존되거나 소멸해 가기도 하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향토민속은 고유성을 갖춘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문화의 전파 속성에 의해 타지역과 차이가 나지 않는 보편성을 띠기도 하며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니고 전승되기도 하는데 자연환경이나 역사, 사회, 풍토에 의하여 형성되고 생활약식이나 방향을 제시하며 신앙, 유희, 관습 등을 내포하게 된다.

속초민속의 특징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승문화적 속성을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산악과 해양의 민속현상과 아울러 호수를 배경으로 한 민속문화의 생성도 흥미로우며 영랑호와 신라화랑, 청초호수의 논피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도 속초의 지역성을 보여 주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이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생활 행위라고 할 수 있다.속초의 세시풍속은 산간과 어촌, 자연 부락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옛부터 속초 지역에서 행해졌던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설날정초의 십이지일, 입춘날,까치 보름날, 대보름날 행사(약밥·오곡밥 먹기, 부럼 깨물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김치·찬물안덕기, 새소리듣기, 달집치기, 개보름쇠기, 나무시집보내기, 연 귀양보내기, 봉숭아밥싸기, 햇불 싸움,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용왕제·배서낭제, 귀신날)	영등할머니 제사, 좀생이 보기, 무(菁根)물먹기,머슴날, 한식날, 경칩먹기	삼짇날, 곡우물먹기, 첫밭갈기, 풀각시놀이와 버들피리,간장 담그기	초파일날,갈걱기, 질어울리기	단오날, 창포비녀와 머리감기, 약쑥캐기, 그네뛰기	단오, 유두날, 복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칠석날, 백중날, 질 먹기	벌초하기, 한가윗날,배나무골풍년 마당놀이, 만천팡대놀이	중구일	설악문화제, 송개틀기, 김장하기	동짓날, 용경	선달, 수세, 윤달

2) 통과례(通過儀禮)

통과의례라 함은 개인이 일생을 살면서 중요한 고비를 넘으려 할 때에 사회에서 인정하는 의례 형식을 말한다. 흔히 중국식으로 관혼상제를 뜻하기도 하여 4례(四禮)라는 말도 써 왔다. 물론 4례는 중요한 통과례임을 알 수 있으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점도 있고 지역마다 가가례(家家禮)라 하여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전개 되어 왔다고 하겠다.

지금의 실정으로 보면 사례 중에서 관례는 그 의미를 상실하여 혼례에 부분적으로 흡수되었고, 전통 혼례도 특별하게 치르는 경우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위 신식 예식장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다만 상례의 경우는 비교적 전통 양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여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간소화하려는 움직임과 아울러 장의사의 규격화된 형식에 따르고 있는 실정도 나타난다.

3) 의식주

가) 의생활(衣生活)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의생활은 방적, 염직, 복식, 세탁에 이르기까지 불과 20~30년 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속초 지방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 짜는 집안이나 누에치는 집이 농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고 하겠다. 의복의 간소화는 바쁜 현대 생활의 추세에 따르는 시대적 현상이므로 평상복이나 노동복에서 현저하다. 다만 혼례복, 돌옷, 수의 등은 예전의 민속복 양식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옷감도 화학섬유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수복의 경우 베, 모시, 옥양목, 광목, 명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의생활은 기후와 생활양식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데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이가 심한 관계로 복식은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속초가 위치한 영북은 동해와 설악산을 끼고 있어 해양과 산악의 지형적 영향을 크게 받아 어촌의 복식과 산악의 복식은 차이를 보인다.

나) 식생활(食生活)

식생활은 의생활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속초는 내륙 쪽의 경우 비교적 농경 생활을 해 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일찍이 생산되어 왔으며, 산간 쪽의 경우에는 감자, 옥수수, 메밀, 도토리 등이 생산된다. 또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긴 동해안에서 각종 해산물이 생산되어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속초의 산

간 지방은 구황식품이 많이 생산되었으나 도문, 노학등 평지는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식생활을 다양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대표적인 속초의 식생활은 김치류, 떡류, 장류에 있어서 소박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데 해안 지역은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쓰고 있다. 대부분 지저 먹는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물 좋은 생선으로 얼간 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 찌는 조리법도 많다. 또한 신선한 어물은 회감으로 많이 이용하고 탕류로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주식은 쌀, 감자를 쓰고 잡곡으로는 메밀이 주로 쓰인다. 이외도 옥수수, 도토리 등을 이용한 식생활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짓갈은 명란젓, 서거리젓, 창란젓, 바다게젓이 대표적이고 요즘은 멸치젓, 새우젓도 많이 쓰고 있다. 설악산에 인접한 동네에서는 산채를 캐서 식생활에 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표고버섯, 송이버섯 볶음 뿐 아니라 송구 떡, 취 떡, 칩 떡 등의 떡류나 송이 나물범벅, 도토리 국수, 메밀국수 등도 만들어 먹는다.

다) 주생활(住生活)

강원도의 영동 지방은 영서 지방과 달리 앞은 동해에 접하고 뒤는 태백산맥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어서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은 주거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주거생활 중 주택은 생활의 근거지로서 풍토적 조건과 생활양식에 의하여 그 모양과 구조를 다르게 한다. 즉 기온의 고저, 강우의 다소, 바람의 강약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주택의 공간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혈족을 가족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이고 주택은 가족이 점유한 최초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옥을 크게 나누면 가옥이 점유한 '가대(家垓)'와 가대 위에 설치된 구조물인 '집'으로 볼 수 있다. 가대와 구조물은 다 풍수와 오행사상에 의하여 선정되고 축조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관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가대로서 전형적인 형국은 등고(登高)한 곳을 피하고 뒤로는 산이 있으며 앞에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오향(午向) 즉 남향하여 양지바른 터를 전형적인 집터라고 한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내닫고 있어 영의 동서 하천들이 동서로 흐르고 있으므로 배산임수의 남향 대지가 지세로 볼 때 저절로 이뤄진 곳이 많으며 취락도 이 원리를 따라 발달한 곳이 많다. 속초는 쌍천과 소야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그 북쪽에서 남향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4) 민간신앙(民間信仰)

가) 민간신앙

다양한 전승 체계를 갖춘 신앙으로 속초 지방의 경우도 복합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안에서 신봉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 행해지는 마을 신앙, 무속인들에 의해 지속되는 굿, 점복 따위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전승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민간신앙의 신앙적 체계나 신봉자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어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토속신앙으로서 조금씩 전승되고 있다.



〈사진 42. 외옹치 성황당〉



〈사진 43. 도문동 상황당〉

나) 집안 신앙

속초 지방에서 모시는 집안 신은 성조신, 조왕신, 삼신할머니, 토지신, 군웅신, 영등신, 용왕신, 축신 따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신을 위하는 상황이 다른데 안택제의 경우는 성조·토지·조왕신을 함께 제사한다. 정월달이나 음력 10월중에 좋은 날을 받아 일주일이나 10일 동안 나쁜 것을 안보고 금기를 하며 팔시루떡과 제물들을 마련하여 빈다.

음력 2월, 6월, 12월은 피해서 가족의 생기와 일진을 맞추어 날받는 사람에게서 길일을 받아 온다. 제사할 때는 집안 대주 즉 남자 주인이 주로 하며 빌 줄 아는 무당을 청하기도 한다. 안택제를 지낼 때는 집 대문 쪽에 황토를 뿌리고 금줄을 친다. 배가 있는 사람은 안택제를 지내고 나서 배에 있는 배성주를 위한다. 배성주는 실과 한지를 배의 선장실에 따로 집을 만들어 걸어 놓고 모시는데 그 해 처음 잡은 고기도 함께 매단다.

이외에도 '조왕신', '쇠구영신', '삼신신앙', '영등할머니', '지신제(地神祭)'가 있다.

다) 마을 신앙

마을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성황제(城隍祭)라 할 수 있는데 속초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리마다 성황당(서낭당)이 존속되고 있다.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비는 뜻에서 성황제가 행해지는데 마을마다 제사 일에는 차이가 난다. 장사동은 음력 8월 한가위를 전후하여 택일하고, 도문동은 동짓달 초순에 택일하며, 영랑동은 단오와 동짓달에 두 번 지내는데 3년에 한번 굿을 한다. 대포동은 음력 10월 초순 길일을 택하여 지내고 외옹치는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물치는 음력 3월 3일과 10월 초순길일을 택하여 지낸다.

영랑동, 중앙동, 장사동 서낭당에서는 화상이 걸려 있는데 성황신을 상징하고 있다. 장사동 서낭제의 축문에는 풍년과 만선, 재액 소멸 등 마을 신앙적 의미가 잘 나타나 있다.

속초의 관문인 대포는 옛날 도천면 사무소 소재지로 속초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으며 유명했던 대포항을 끼고 냇물치, 대포, 외옹치, 3개 자연 부락이 형성되어 소수의 농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이 고기잡이를 주생업으로 하여 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성황제는 무사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성황제 풍어 놀이도 마을 주민 전체가 자리를 같이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왔다. 일찍이 3개 자연 부락에는 부락마다 성황당을 짓고 해마다 성황제를 지내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마을 신앙으로 또한 산신제가 있는데 설악제는 산신제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악제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1075~1151)의 『삼국사기』잡지 제사조에서 볼 수 있는 삼산오악 이하 명산대천은 대중 소사로 나누어 제사지냈다. 이중 소사(小祀)로 설악이 들어 있으므로 설악산신제는 신라 때부터 행해졌다고 하겠다.

단순한 신앙적 측면의 산신제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제전을 통해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보편적 이상이 설악제에는 담겨져 있다.

설악제는 설악동에서 신목을 택하여 봉안하는 강신 행사로부터 시작하여 제사를 지낸 후 산신이 내린 신목을 모시고 속초 시내를 돌아 지정된 장소에 안치한다. 지역 주민 및 각급 기관장들에 의해서 조건제를 지내는데 설악대제라 하여 설악산신, 동해 용왕신, 속초 성황신을 함께 봉안하여 치제 한다. 이러한 대제는 속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산악과 해양, 자연 부락 단위로 치성을 드리는 것을 화합축제의 측면에서 합동으로 제사하는 것이다. 설악제는 토착 신앙으로서 산신제에서 산악 무사고를 비는 행사로 1966년부터 본격화되었으나 그 이후 산악인뿐만 아니라 전 속초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마을 축제로 자리잡았다고 하겠다.

라) 무속신앙(巫俗信仰)

무속 신앙은 무당들에 의해 치뤄지는 굿의 형태를 지칭하는데 개인 가정 굿과 마을 공동 굿이 있게 된다. 공동 굿은 시장에서 하는 별신굿과 어촌의 풍어 굿이 있다.

속초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곳으로는 청호동에서 행한 용왕위령굿과 외옹치 고폘이굿, 모내기 수살굿 등이 지역성을 반영한 곳들이다. 용왕 위령굿은 속초 시내 13개 동 중 어민이 가장 많은 어촌 마을인 청호동에서 어부가 어로 중 바다에 희생된 넋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굿이다. 이 굿은 빈순애, 김명익씨 외 속초 무속인들이 참여하여 제21회 설악제때 선보였다. 외옹치 고폘이굿은 전영문, 서원순씨가 고증하여 1983년 1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속초시 대포동은 동해의 관문으로 외옹치는 뱃독재라고도 부르는데 독재는 독마우 고개라는 뜻이다. 고폘이는 성황제와 용왕굿으로 나뉘어 행해지는데 장승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적이다.

4)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옛부터 즐겨오던 놀이로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더러는 요즘에 전자 오락에 밀려 차츰 없어져 가는 형편에 놓이기도 하나 아직도 농·어촌 마을에서 고유한 민속놀이는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속초 지역의 민속놀이는 산촌, 어촌, 자연 부락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어서 계속적인 보존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참고로 1986년 설악제시에 행해진 민속예술 경연 대회에 출연했던 민속놀이를 보면 향토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정다지기(영랑동), 든대질놀이(동명동), 짱치기놀이(중앙동), 가마싸움놀이(금호동), 만천광대놀이(교동), 도리원풍년마당놀이(노학동), 장원놀이(설악동) 등이 있었으며 1985년도에는 논피호의 불꽃놀이(중앙동)가 재현된 바 있다.

가) 아동놀이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비사치기, 땅뵈기, 풀각시 놀이, 짱치기

나) 어른 놀이

논피호 불꽃놀이,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만천광대놀이, 든대질 놀이, 지정다지기, 도문 붓물 싸움 놀이 따위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만천동 나룻배 싸움 놀이'를 소개하면, 만천동은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컫는 옛 지명으로 이곳의 나룻배 싸움 놀이를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선 보였다.

구비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 숫룡이 살고 있었고 영랑호는 암룡이 살아서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했다고 한다. 또한 이때의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했다고 한다. 이 나룻배 싸움 놀이에서 진 마을 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을은 풍어와 대풍년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뭄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옛날의 만천동 나루는 북으로 영랑호, 남으로 청대리 싸릿재를 이어 도문동으로 연결되었으며 동쪽으로 대포동을 이었다. 나룻배 싸움 놀이의 시작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용제를 올릴 길일을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제주와 제관은 목욕재계하고 부정을 금하게 되는데 동네 청년들이 용신제를 올린다. 풍년과 풍어 마을 안녕을 기원한 다음 나룻배를 타고 상대편 마을로 찾아가 동네 어른을 찾아서 인사를 한 다음 함께 음복을 한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면 나룻배를 타고 각자 마을로 돌아와 나룻배에 신주와 제물을 차려 호수로 나간다. 호수에서는 음식을 뿌리며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한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음식과 술을 나누며 흥을 돋운 다음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양편의 나룻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가 배끼리 부딪쳐 상대편 마을로 밀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 상대의 힘에 밀려 나룻배가 되돌아오면 지게 되므로 힘껏 줄을 당기고 노를 젓거나 막대로 서로 밀게 된다. 이처럼 힘을 겨루어서 이기게 되면 풍어를 약속 받는다고 믿는다. 나룻배 싸움 놀이가 승패를 정하게 되면 승자나 패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마을 청년들이 어울려 놀이마당을 벌인다.

나룻배싸움에서 승리한 마을에서는 청년들의 임금을 올려 주고 도선료를 받지 않고 푸짐한 대우를 해주게 되므로 힘껏 싸움 놀이를 하게 된다. 나룻배싸움은 결혼하여 가마를 타고 오다가 나룻배에서 만나게 되어도 이와 같이 하는데 '혼례 나룻배 싸움'에서 이기면 신부가 첫아들을 낳는다고도 하며 육지의 가마 싸움 놀이와 비슷한 형태이다. 만천동은 동군, 청대리는 서군으로 나누어 편전(偏戰)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민속놀이는 줄다리기와 같은 풍요제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나룻배에 아들을 많이 낳아 기르는 장정들을 뽑아서 태우는 것도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암수룡으로 상징되는 나룻배 싸움이 결국 하나로 화합되기 위한 절차이며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잉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천동 나룻배싸움놀이는 용선희(龍船戲)와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해양 민속으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5) 민요(民謠)

민요는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이 노래로 표현된 것인데 지방마다 독특한 향토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정선 아라리, 강릉 오독떼기, 삼척 메나리 등은 강원 지방의 향토 민요가 자생적인 기반을 갖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초 지방은 과거에 양양권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농요(도천 메나리)는 도문동 등 양양과 가까운 곳에 주로 남아 있고 설악산 등 산악 지방에서는 초동들이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나 핏골에서 나무하면서 부르던 노래, 산삼 캐는 심메 노래도 간간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어업요는 속초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다수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 어업 노동요는 크게 나누어 배를 바다에 진수할 때, 닻을 올릴 때, 입·출항시, 그물 당길 때, 고기 퍼 올릴 때, 그물에서 고기를 털 때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고기 잡으면서 부르는 민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도천 메나리

도천은 일제 때 도문면과 소천면을 합친 지명으로 현재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에서 이 메나리들을 들을 수 있다. 논 김을 매면서 즐겨 부르던 농요로서 고유의 멋을 간직하였다.

나) 속초 뱃소리

속초의 뱃소리는 이곳 명칭으로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 소리)등이 있는데 강원도식과 함경도식이 있다고 한다. 이는 속초 지방에 많은 함경도 이주민들이 있으므로 서로 섞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징은 강원도식이 짜임새가 단순하면서 소박하고, 함경도식은 잡담 사설이 풍부하고 강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지어소리

'지어소리'는 배가 항해할 때 노젓는 소리로 2/2박자의 경쾌하면서도 애조를 띤다.

'허리도리'라는 선창자가 부르며 나머지 어부들이 후렴을 부른다.

헝-헝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세월아 네월아 가지록 말아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후렴구 이하 생략) 알뜰한 청춘이 늙어간다.
지어라 내지-이말청춘 그림도다. 저 달 보고 울지를 말아
간다더니 왜 왔던가 기암기산에 왔던 걸음이 밝힌 잠이나 자구 자거라.
자꾸 가구나 지어라 내지가 지만사를 생각하면이 가슴이 불이 붙는다.
오동추야 달 밝은데 님의 생각이 절루만 난다지어라 내지 지어라 내지

요차보자 지어라. 내자가자 가자. 빨리 가자. 이수 건너 백로 가자.
 백로 함께 어서 가자. 조그마한 자라. 등에 크다 하는 저 달을 싣고
 우리 고향 언제 가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 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입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자.
 님아님이 정든 님아 요내가슴을 만지어 보아라. 청청 하늘에 별두나 많다.
 지어라 보구지 지어라. 내지

이외에도 다리어소리, 산대소리, 베끼소리 등이 있다.

3. 설 화(說話)

설화는 입으로 전승되어온 꾸며낸 이야기로서 구비문학(口碑文學)에 속한다. 설화를 일반적으로 신화(神話, myth), 전설(傳說, legend), 민담(民譚, folktale)으로 구분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속초지방설화도 이에 따라 분류된다.

속초지방에서는 신성성(神聖性)을 갖춘 완벽한 형태의 신화를 찾기는 힘들지만 내용상 신선계통의 화소(話素)가 들어 있는 것들도 있다.

본 내용은 그동안 조사되었던 여러 책들에서 골라 수록되었다.

가. 전 설(傳說)

1) 영금정(靈琴亭)과 속초

고향이 여기기 때문예요. 토박이로서 가슴아픈 옛날의 명승지 없어진거 말씀하지요. 제가 어려서 듣건데 선녀들 하강해 목욕을 하고 비파를 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영금정이란 유래가 됐는데, 제가 명승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본사람들이 그 명소에서 암석을 채취해 지금 방파제를 만들었고, 축항을 만드느라고 명소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가면 장군이 말을 몰고 다녔다 하여 너래반석위에 말발굽이 있었고, 장군이 말을 몰고 갈때 남은 큰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강산의 옥녀봉 너래바위 건너 뛰듯이 웅덩이를 건너 뛸 때 돌맹이를 밟고 건너 뛰어야 하는데 그 돌을 짹 밟던 말이 밟던 소리가 난다. 그래서 징바위 같은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일본놈들이

축항할 때 암석을 깨자 여기 토목과장하던 일본사람 부인이 아주 중병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 약을 써도 안나왔다. 그라고 용한 사람에게 물었더니, “그 영금정을 당신이 부숴 쓰기 때문에 그 영금정의 혼백들이 당신 부인에 실려 앓으니깐 큰 곳을 해라” 하였다. 그 장군바위 즉 영금정바위가 장군처럼 생겼는데, 투구를 쓰고 전체 모양이 투사같이 생겼고,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너레반석 위에 석벽이 있었는데 석벽에 일곱 여덟개의 옷벗어서 넣는 구멍이 파져 있었다. 그때 거기다가 비단 필륙으로 세네가지 필륙으로 바위를 덮고 일본놈들이 큰 곳을 했다. 그래서 토목책임자 부인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있다.

군부대가 있는 데가 소나무가 하늘로 솟아 있고 밑에 바위가 있어 저 풀잎을 농민들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어, 속초라는 이름이 되어 묶을 속(束)자를 거기서 썼다고 하였는데 그 곳에는 지금 소나무가 하나도 없고 외딴 섬처럼 되었는데 지금은 다 메워가지구 하나가 되었다. 영금정 안에는 말이 먹던 그 구유가 있었고, 바위로 만들어서 달아 났었다. 그 구유는 아주 큰 돌인데 사람인력으로 도저히 못가지고 간다. 그 큰 암석을 굴러 연안에 있는 큰 바위를 암석위에 갖다 놓았다. 그래서 영금정도 유명해지고 관동의 명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 바위를 옮겨놓았다고 해서 시골에서 갓쓰고, 하얀 옷을 입고, 치마 두른 촌사람들이 구경왔다. 지금은 풍랑에 물속으로 들어갔다.

〈김정우(남·69) 장사동 3/1. 1992. 3. 27〉

2) 청초호(靑草湖) 용경(龍耕)

청초호에 대해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경이 나오는가 하면은 청초호가 또 한가지는 옛날에는 그 겨울에는 호에 얼음이 었니다. 어는데 얼음을 보고서 그 다음해의 농사를 풍흉을 그 점쳤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얼음이 어는 것이 꼭 눈을 갈아 논 것같이 그런 얼음이 었니다.

그걸 갖다고 용경(龍耕), 용갈이, 용이 눈을 갈아 놓았다는 듯이 용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인제 그 용경이 누워 있는 방향을 보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되겠다 못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점쳤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청초호이면서 이 청초호는 앞으로에 우리 속초로 바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쪽에 남을 향해서 갈아 났을 때 풍년이 들고, 북으로 향해서 엇갈이로 갈아 놓았을 때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남북을 나눠서 길흉을 점쳤어요.

〈장헌영(남·54) 중앙동. 1981. 4. 27〉

산을 여기서 바라보면 병풍그림같이 아름답거든요. 그런 것을 누가 배었다 하여 역부로 찾아 올라갔더니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습니다. 화병은 그림 화(畵)자, 병풍 병(屏)자, 청대산의 모습이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같이 그렇게 아름답다. 청초호에서 본 것이지요.

다음에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의 계잡는 불꽃이 보기 좋았던 모양이에요. 지금 오징어잡이 배가 저기 나가 있는 걸 보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보고 “야, 속초가 굉장히 크다. 여기도 전기불 있네, 저기도 전기불 있네” 그러지요.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扶月里)를 주교리라 불렀지요.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논산조양(論山朝陽). 논산이 속초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곳이지요. 높아서 해가 뜨면 어디보다도 거기에 먼저 비쳤다 해서 논산에 아침 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주 아름답다.

그 다음에는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에서 고기 잡는 배가 원포귀범(遠浦歸帆)이라고 소상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초에서 보면 배가 돌아오는 것이 참, 해는 저물고 석양빛을 받아서 돛대를 달고 돌아오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상팔경 하나인 원포귀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다음에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맑게 보였다고 해서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다.

다음에 온정조하(溫井朝霞)라 이러는 데 온정의 아침 노을, 그건 뭐고 하니까 지금도 온정에 거기서 더운 물이 나온답니다. 옛날도 물이 뜨시기 때문에 겨울 아침이 되면 거기서 인제 수증기가 올라가서 거기서 발산하여서 속초 이쪽에까지 전부 설악산에 구름 끼듯이 수증기 안개 같은 게 그렇게 아름답게 끼었답니다. 그래서 온정조하라 부른답니다.

〈박익훈(남·77) 교동. 1992. 4. 21〉

4) 영금정(靈琴亭) 이야기

영금정은 바위가 다 깨지고 지금은 돌이 없어. 청호동 죽항 쌓는데 다 썼지. 옛날에 파도가 치면 그게 울려퍼져 공간이 생긴 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거문고타는 소리라고 해서 영금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옛날에 천제를 지냈었는데 돌을 깨는 바람에 그 주기가 없어졌지.

청초호를 쌍성호라고 했는데 여기에 청용이 살았었어. 영랑호에는 영랑 화랑이 있었는데 황용이 있었고, 매일 청용과 황용이 자꾸 싸움을 하니깐 바다가 풍랑을 일으키면서 파도를 일으키니깐 어민들에게 시샘을 많이 당해 사고가 많이 났었어. 그래서 제사

를 지냄으로써 청용과 황용의 싸움을 막았고 재난을 어느 정도 막았다는 전설이 전해 오지.

그 전설이 꽤 오래 800여 년 정도 되었어. 지금도 용의 꼬리 모양이 아직까지 영금정 부분에 아직까지 있는데, 여기서 4년에 한번씩 단오날을 기준으로 3일씩 굿을 하지.

단오날을 같이 서낭을 할 때 할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중앙동 서낭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는데 부산 무당, 속초 무당 등을 선정해서 굿을 해. 이런 것을 하면서 화합의 한마당이 되는 좋은 점이 있어서 영동지구에 배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성금을 모아 재난을 없애지.

〈김택성(남·55) 영랑동. 1999. 11. 20〉

6) 영랑호(永郎湖) 용(龍)이야기

옛날에 용이 하나 있었어. 그 용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용이었어. 그 용은 여의주를 달밤에 아가리에서 빼내 가지고 달빛을 비추어야 했지. 그런데 그곳에는 여의주를 노리는 이무기가 한 마리 있었거든. 어느 날 용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이무기가 여의주를 눈 깜짝할 새에 삼켜 버렸지. 그래 가지고 용이 된 이무기는 승천을 하고 남은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빼앗아간 이무기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것이 영랑호였어.

〈이상기(남·41) 금호동. 1999. 12. 17〉

7) 울산바위(蔚山岩)와 동자승

우리 전설에 보면 울산 바위는 울산 고을에서 올라 왔다. 아, 그래 가지고 그 전설이 계속 되어 가지고 저게 인제 울산 바위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아직 원명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 원명을 좀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울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 천후산, 후자는 울 후(吼)자, 그러니까 공자라는 공(孔)자(字)옆에다가 입구(口) 변입니다. 천은 하늘 천, 그래서 천후산(天吼山)입니다. 본명(本名)이 천후산인데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 하다가 나중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던 말이죠.

‘울산’ 하니까 듣는 사람이 아, 울산에서 왔구나. 그때 그 뭔가 저 이조 초엽에 한창 그 배불 승유 사상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선비들이 그 유생들이 놀러 왔다가 그 울산 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그 울산 고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때 그 울산 고

을에서 원이 그 마침 풍류차 왔다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그 뭔가 배불 사상이 농후할 때니까 중을 좀 꿀탕을 먹이고 치부를 좀 할 생각으로 그 호통을 치면서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지한 놈들 같으니, 왜 우리 울산에서 이 거대한 바위를 갖다 놓고 세금을 물지 않느냐, 한 놈이라도 오나 하고 봤더니 오지도 않고 께썸한 놈들 같으니.” 하고 호통을 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 중들이 세력이 없으니까, 꼼짝 못 할 판이거든. 그래서 꼬박꼬박 물다가 동자승이 지혜로 그것을 면했다. 이래 가지고 그 울산에서 온 것같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래 인제 동자승이 말하기를 그 저, 주지가 맨날 세금을 뜯기다 보니 말입니다. 절의 살림살이 들통이 나는 판입니다. 그래 농사를 지어 놓으면 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고 싹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하루는 인제 그 절을 폐해야 될 판인데, 주지가 그 걱정이 된다는 얘깁니다.

“울산에서 살림 받으러 올 텐데.”

그래서 상당히 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자승이,

“스님, 그 무엇 때문에 요즘 그렇게 근심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건 알 바도 아니고 또 니가 알아 봤자 해결할 문제도 못 된다. 그러니까 넌 알라고 하지도 말아라.”

“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면 같이 들어서 근심을 해 보면 뭔가 좋은 수가 나지 않겠습니까?”

동자승이 다구쳤단 말이요, 주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도 그럴듯하던 말이야. 그래서 그 사유를 얘기했던 말이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그걸 갖고 뭘 그리 근심하세요? 그건 나한테 맡겨 두세요. 그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분명히 말이지 울산에서 바윗세 받으러 오거들랑 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인제 아닌게 아니라 가을에 받으러 왔다 이 말이야. 오니까 인제 그 동자승이 나갔어요, 접대하는 걸 그래,

“어째 왔느냐?”

“바윗세를 받으러 왔다.”

“예, 저 바위가 우리 사찰에 와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는 지금 저 바위로 말미암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거대한 놈이 차지하고 있으니 자, 풀 한 포기 안 나고 나무 한 그루 못 심고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 와 가지고 가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하거든,

대단히 분할 것 아닙니까? 그래 야단 났다 이 말이야.

“내 가지고 가는데, 내 가지고 가도록 니가 준비를 해 주겠느냐?”

“해 드리죠. 뭐 준비를 어떻게 해 드리죠?”

“큰 새끼를 가지고 저거를 저 바위를 다 얹어 놓아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올테니까, 요 아래 마을에 머물 테니까 다 해 놓고는 연락해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제 그 동자승이 부락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새끼를 꼬는 거예요. 하, 뭐 맨날 며칠 새끼만 꼬고 있으니까 이 주지가 가만 생각해보니 저 놈이 뭘 할라고 새끼만 꼬고 있는가?

“야, 이놈아, 뭘 할라고 그러느냐?”

“아, 주지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제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 새끼를 짹짹 꼬아 갖고는, 상당히 많이 꼬아 갖고는 소금에다 한번 푹 적서 소금물에다 푹 담가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인제 올라가는 겁니다. 울산 바위를 마, 칭칭 감고 새끼로 동이는 거지요.

다 동이 놓고 난 뒤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거죽은 마 시커멓게 타 빠리고 이 안에 말입니다. 소금물이 들어가 놓으니 안에 속속들이 다 타질 않거든요. 그래 거죽에만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그래 봐 노니까 만약 이 지대로 다 타 버리면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속은 남아 있고 거죽만 타는 거지요.

그래 인제 “불을 질러 잘 끄슬러 났다고 내려가서 훑아매 났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이 사람들 생각에 “설마 니가 그랬겠나?”

아, 올라 가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해 났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이랬는데. 그래서 인제 이 울산 바위 전설이 바로 그런 데서 인제 약간에 비추어졌는데 인제 그 산을 갔다가 인제 천후산을 갔다가 인제 울산, 울산 하다 보니까 그만 저 울산 고을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의 해학적으로 인제 그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럼 저 울산에 대해서 저기 굉장히 뇌성이 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저 산에서 우는 소리가 짹짹 울려서 말입니다. 아주 그 사자가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산이 덜 울창하니까 그런 면이 뭐 별로지만 옛날에는 아주 굉장했답니다.

〈장헌영(남·54) 중앙동, 1981. 4. 27〉

이외에도 수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4. 방 언(方言)

속초방언은 전국 방언 중에서도 농업, 어업,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소도시 방언 구역으로서 세 직업 방언의 상호 영향의 관점에서 그리고 원래 고성, 양양 방언권으로 불리우던 전통적인 지역 방언구역이었다. 하지만 6·25이후 신흥도시로서 인구 이동의 유입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가치가 큰 방언의 하나이다.

더구나 청호동 지역(속칭, 아바이 마을)은 함경도 출신 1, 2세가 90%를 점하는 특수 지역으로 방언학상 강릉 방언과 같은 고립된 잔재 지역이다. 더구나 고도 방언 지역(孤島方言地域)이라 부를 수 있고, 함경 방언 연구를 위해서는 지금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어 원래 부부방언의 억양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속초, 양양방언에 함경도 출신의 집단 주거와 이에 따른 지역 사회적 영향은 방언에 대해 학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속초방언의 전반적 체계는 다른 영동 방언권과 비슷하여 예컨대 음운 체계나 종결 어미와 상대 존대법 체계가 비슷하고 그 보존형 어휘도 강릉, 삼척처럼 강하게 남아 있으며 많은 단어가 차이 없이 쓰인다. 그러나 반면 강릉, 삼척권 보다도 ㅂ, ㅅ 보존형은 숫적으로도 적어 매우 약한 점, <-나?> 보다 <-니?>가 우세한 점, <-니다, -니까?>가 <-네다, -네까?>에 가깝게 발음되는 점, 단어나 문장의 고저 억양이 심한 점, 일부 단어 형태가 강릉, 삼척 방언권과 구별되는 점 등은 속초 방언이 강릉, 삼척 방언과 분명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속초방언의 이런 특성은 국어의 북부, 남부, 중부 방언이 삼면에서 만나 접촉되는 특이한 전이 지대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 이 점은 고성, 양양 방언도 마찬가지로 국어 방언학 상으로도 이 지역들이 전이 지대 방언 연구의 중요한 곳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 어업, 상업이라는 이질적 상업 지역이 공존하는 소도시 지역방언은 전국에서 흔하지 않는데 속초 방언 내에서도 함경 방언 지역인 청호동 일대는 전국에서도 희귀한 고도 방언(孤島方言) 지역인 바 역시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흥미 있는 곳이라 하겠다.

아울러 그 동안 영동 북부 방언권의 대표로는 속초시의 유래가 짧아 고성 양양 방언이 거명되어 왔으나 이제 속초시가 이 지역의 중심권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앞으로 영동 북부 방언권의 대표 방언은 속초 방언으로 거명되어야 하며 이는 영동 중·남부 방언의 대표 방언을 강릉, 삼척시 이름으로 대표 방언을 삼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끝으로 이 지역의 농업, 어업지역은 앞으로도 속초 방언의 고유 요소를 간직해 갈

것으로 예상되나, 시내 상업 지역은 급여한 관광 레저 산업의 성장과 관광산업 인구(특히 서울 중심의 표준어권 인구)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 외래어 상호의 범람과 함께 타 지역 방언의 간섭으로 인한 언어 변화가 심하게 예상되어 고유한 속초 방언의 요소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것이다.

5. 교육(教育)

속초에서 최초의 공교육(公教育) 기관은 1919년에 설립된 대포 공립보통학교이다. 이전에 양양에는 고려 충숙왕 때 이미 향교가 창립되었고, 조선 왕조, 인조 때에는 사학(私學)으로 동명서원이 들어서 지방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일제 강점 직전인 1906년 신학문을 가르치는 현산학교가 설립되는 등 정규교육기관이 일찍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속초는 양양에 속하였던 지방으로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3면 1교(三面一校)” 정책에 의해 최초로 당시 속초에 근대 교육기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전에는 양양군 지역의 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서당 등 개인 교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 직후의 속초 인구는 도문면에 590명과 소천면에 640명으로 합해서 1,230명에 불과했으며,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할 때 학령 아동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별도의 교육기관 설립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지역 원로들에 의하면, 정규보통교육기관인 대포공립학교가 이곳에 세워진 후에도 한동안 서당교육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구한 말까지도 신학문 학교의 설립에 대해 유림(儒林)들이 극렬히 반대하였으며, 양양의 현산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것이 그 좋은 하나의 예이다.

속초에서의 최초 개량서숙은 청대리에 장성현(張聖軒)이 설립한 “청대서숙(靑垓書塾)”으로 설립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서숙은 대포학교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4~40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였을 정도의 규모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학생들은 기혼자에서부터 7~8세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연령 격차가 심했다고 한다. 대포학교의 영향으로 학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들의 집으로 전전하면서 서당을 운영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시대의 변천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이때 서숙의 명칭은 “청호서숙(靑湖書塾)”이었다고 한다.

광복 이전 이 고장의 서당 훈장들은 원로들에 의하면 도리원 이교민(李敎民), 상도 문리 오윤환(吳潤煥), 오각환(吳珏煥), 온정리 진동규(陳東奎), 장천리 엄내영(嚴乃

泳), 엄주익(嚴柱益), 척산리 차명균(車明均), 논산리 장원섭(張元燮) 등이다.

현재 속초에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4개(남녀 각 2), 고등학교 3(남녀 각 1개, 남녀공학 1), 대학 1개가 있다.

초등학교 195학급에 8,000여명, 중학교 79학급으로 4,000여명, 고등학교 75학급 4,000여명, 대학 3,000여명이며, 65여개의 영유아 교육기관도 있다.

현재 속초교육청은 속초시와 양양군의 교육행정을 관할하고 있다.

V. 속초의 산업(産業)



1. 농 업(農 業)
2. 수산업(水産業)
3. 관광업(觀光業)

V. 속초의 산업(産業)

1. 농업(農業)

가. 농업의 역사

농업은 도구를 써서 흙을 갈아 작물을 키워 식생활을 해결하려는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시대적으로는 신석기시대에 농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그 연대는 지역에 따라 구구하고 학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속초에서 농업이 시작된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이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는 민무늬토기를 비롯한 토기류와 반달돌칼, 돌도끼, 숫돌조각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된 농경생활을 더욱 발전시켜서 돌도끼나 흙자귀, 팽이, 그리고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개간하여 곡식을 심고 가을에는 반달돌칼로 이삭을 잘라 추수를 하였다. 농업은 조, 보리, 콩, 수수 등 밭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저습지에서는 벼농사도 이루어졌다. 또한 진흙을 불에 구워서 토기를 만들어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이 보다 나아지게 되었다.

철기시대 이후 한반도에서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생산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벼를 주 작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농사를 제일로 하는 농본 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확충했고, 600년경 신라에선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이로 말미암아 초기국가 이래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많았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강력한 농업정책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농업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벼의 재배법이 다양하여 직파법, 모내기법이 적절하게 쓰였다. 또한 수리 행정의 강화와 제언의 개수, 수차의 제작, 농서의 보급 등이 이루어져 농경의 비

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조선 후기에 오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구황작물로 많이 재배하였다.

일제 강점기 도천면의 1925년도 《면세일반》을 보면 도천면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11호 총 6,222명이었다. 이 중 640호 인구 3,941명이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호수로 63.30%, 경제 활동 인구의 67.2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포구를 끼고 있는 도천면에 70% 정도의 농업인구가 있었다면 속초 사람들은 농업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초지역 농민들은 자작농 25%, 자작겸 소작농 54%, 순소작농 22%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더 많았다.

이는 속초 지역 농민의 어려운 생활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대공황은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로 미곡을 주요 생산물로 하던 조선의 농업구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속초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1930년 가을, 미곡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은 절반으로 폭락하였고, 소작료와 수리조합비 등은 오히려 인상되어, 봄이 되면 끼니를 거르는 농민수가 증가하고 소작농이 증대되는 한편 이농자가 속출하였다는 당시 신문보도가 있다.

광복 후 농업에 대한 개혁이 시작되어 반봉건적인 지주·소작관계를 없애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단 반봉건적 소작제도가 청산되고, 농민적 토지소유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나. 지역의 생산물(生産物)

속초에서 현재 농업에 관계되는 토지는 전체 104.91㎢중 9.97%에 해당하는 10.36㎢이다. 농업에 관계되는 토지는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등을 들 수 있는데 도시의 발전에 따라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이다. 농지의 감소에 따라 농가수도 매년 감소하여 1993년 828농가 3,362명에서 1998년 765농가 2,943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는 76%나 되는 많은 부분이 임야로서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인해 지금은 관광산업이 주가 되는 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농업이나 수산업도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속초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로는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옥수수, 콩, 팥, 고구마, 감자 등이 소량 생산되고 있다.

채소류의 생산은 배추, 무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 파, 오이, 호박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소량 생산되고 있다.

과실류의 생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8년 생산량을 보면 복숭아, 배, 사과

〈표3〉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M/T

연별	구분	벼	고구마	감자	옥수수	메밀	콩	팥	조	수수
1996		2,292	1,362	1,343	46	8	32	18	2	1
1998		2,039	572	572	39	11	28	2	1	

자료: 농업기술센터

〈표4〉 채소류의 생산량

단위 M/T

연별	구분	배추	무	파	오이	호박	고추	들깨
1993		782	350	286	50	123	53	21.6
1998		745	318	270	156.2	103.2	31	18
연별	구분	시금치	마늘	토마토	참외	수박	참깨	양배추
1993		52	13	30	16	39	1.3	65
1998		17.9	15.8	7.1	6.5	3.7	1.4	-

자료: 농업기술센터

〈표5〉 과실류 생산량

단위 M/T

연별	구분	복숭아	배	사과	포도	감
1996		199	202	52	21	1.0
1998		195.4	44.5	30.3	1.7	1.0

자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생산되고 있으나 배의 경우는 5년 전에 비하여 약 1/5수준에 불과한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속초의 농업은 시의 외곽지역인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도문동, 장사동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물은 중앙시장이나 마트를 통하여 소비되고 있지만, 일부는 직접 관광객을 상대로 생산,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속초의 생산물로는 속초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관계로 속초의 인근 지역인 양양과 고성에서 생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요즘은 대형마트들이 생겨남에 따라 대관령 등지의 고행지 농업 생산물까지 유입되기도 한다.

2. 수산업(水産業)

가. 개 관(概觀)

수산업이라 함은 수산 생물을 채취·포획하는 어업, 번식·조장하는 양식업, 어업과 양식업의 생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하는 수산가공업을 말하며 최근 들어 수산물의 유통사업도 포함시키고 있다.

속초시의 수산업은 주로 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점차 양식업, 수산가공업, 수산물 유통사업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시의 인구중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7.1%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강원도 어업 인구의 32%에 달하는 우리시의 주요 산업이다.

나. 수산업 변천(變遷)

속초시는 9.4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양동 선사유적지가 보여주듯 오래전부터 영랑호, 청초호와 더불어 바다는 삶의 터전이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어량(漁梁 : 어장)에 의하면 “동해는 수심이 깊어 서해, 남해에 비해 어획된 어종이 매우 미미하였다.” 하나 광복 이후 월남해 온 함경남북도 사람들의 발달된 어로기술의 보급으로 어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1925년 《면세일반》자료에 의하면 어선 100척에 어업종사자는 29%였으며 명태와 열갱이가 주어종으로 정어리, 고등어, 칼치, 미역, 상어, 청어등도 많이 잡혔다.

1931년에는 정어리 기름을 짜는 공장이 생길 정도로 정어리가 항구에 쌓였으나 70년대 도루묵이, 80년대에 노가리(명태새끼)와 명태가 감소하는 것을 보았듯이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37년경에는 맑은 청초호에서 굴양식을 했으며 1944년에는 콩치, 고등어통조림 공장이 있었고 물고기를 원료로 한 질소, 인산이 풍부한 비료와 여러 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물고기 기름 등을 생산하였다.

광복 후 1955년 12월 12일 속초항이 정식 개항되었으며 1991년 3월 8일 국제항으로 지정되었다.

1958년 어선의 수는 456척, 1962년 811척, 1972년 851척, 1982년 765척으로 감소했다가 1984년에 885척으로 다시 증가, 1989년 721척으로 다시 줄어들어 1992년 623척, 1999년

에는 604척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어선은 대형화, 고성능화가 계속되고 있다.

다. 해안 환경(海岸環境)

속초시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대륙붕의 면적이 협소하며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고 개펄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한·난류가 교차하는 수역을 주어장으로 하는 어업이 발달해 왔으며 계절별로 어업의 대상 어종의 구별이 뚜렷하고 연안, 근해 어족자원이 다양하다 할 수 있다. 폭풍우의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날이 연간 20일 이상 되기도 하고 기상상태가 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라. 속초항(束草港)과 그 부속항

속초시는 고구려 때에 이문현(伊文縣)이라 불리웠고, 고려 현종 때에 이르러서 현령을 두었으며 원종 6년에는 도호부(都護府)로 한 바 있고, 고종 8년에는 현령을 방어사로 승격시켰다가 그 후 한때는 덕녕현(德寧縣) 감무(監務)로 격하시킨 때도 있었으며 고종(高宗) 23년에 이르러서는 군(郡)으로 개편되었다.

속초항은 당시 첨사(僉事)가 있었던 곳으로 양양군(襄陽郡)의 문호(門戶)로 되어 있었으며 근해에는 풍부한 수산 자원이 부존되고 있으므로 어민들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현존에는 유수한 어항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항만법상 1종항이며 1905년 동해 연안항로가 개설되면서 선박의 기항지로 이용되다가 광복후 1955년 정식 개항되었고, 1964년 개항장(開港場)이 되었으며, 1991년 3월 8일 국제항으로 지정되었다.

속초항을 중심으로 백두산 카페리호와 금강산 쾌속관광선이 출항하고 있고, 항의 바깥쪽에 위치한 청호동 방파제에는 국제관광선부두가 건설되고 있어 이제 속초항은 환동해시대의 국제관광·교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일대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1) 대포항(大浦港)

속초 역사의 시작과 함께 발달된 항구로서 연안어업, 정치망어업, 등이 발달하였으며 현재는 어항으로서의 역할보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관광항으로 속초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대포항은 현재의 어항을 확장하고 배후부지를 매립하여 관광레저·유통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다.

2) 청초항(靑草港)

우리가 보통 속초항이라 부르며 전국적으로 유일한 석호(潟湖)로 이루어진 천혜(天惠)의 항구이며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어 수산물의 위탁판매 및 유통의 출발지이며 어항과 기항의 역할뿐 아니라 과거에는 양양철광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수출하면서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3) 동명항(東明港)

예전에는 현재 해양경찰서가 있는 곳과 영금정 진입로까지 바다였으며 속초 연안 유일의 해저 빨이 형성되어 있어 조개의 대량 생산지였으며 영랑동, 동명동, 어민들의 작은 포구였으나 현재는 대포항에 버금가는 속초의 명소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다. 또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통일의 교두보 역할, 그리고 다목적 국제관광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립하여 거대한 물양장을 건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롭도록 하였으며, 2000년 4월 28일부터는 러시아(자르비노항)와 중국(훈춘)과를 연결하는 카페리호가 입출항 하는 "백두산 항로"가 개설되어 남한 최북단 중심항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진 44. 속초항 전경〉



〈사진 45. 국제무역항인 동명항〉

4) 사진항(沙津港)

장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본 시설은 1998년에 완공하였으나 2002년까지 어항과 관광항으로 개발하고 있다.

5) 내물치항(內勿溜港)

속초의 관문 설악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포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관광항포구로 2011년까지 건설 계획이 세워져 있다.

마. 주요 수산물(水産物)

속초를 대표하는 어종으로는 오징어, 명태, 콩치를 들 수 있고 이 밖에도 노가리, 문어, 도루묵, 양미리, 게, 임연수어(새치) 등과 연안 어촌계 공동작업으로 전복, 해삼, 미역, 다시마, 우렁쉥이(멍게), 조개류 등과 정치망 어업으로 연어, 쥐치, 청어 등과 연안 활어를 생산하고 양식업으로 가리비와 전복 등을 기른다.

〈표6〉 어떤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서 잡히나

어떤 물고기	언 제	어디에서	비 고
오 징 어	여름철을 중심으로 연중	대화퇴, 울릉도, 독도, 대마도, 근해	냉장선, 냉동선
명 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고성, 속초연안	낚시, 그물
콩 치	4월부터 7월까지	고성,속초,주문진연안	그물, 손콩치
양 미 리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고성, 속초 연안	그 물
연 안 활 어	연 중	속초 연안	일일 조업
기 타 잡 어	연중	속초 연안	정치망 등

바. 주요 어법(漁法) 및 어구(漁具)

주로 이용되고 있는 어법으로는 명태를 잡는 주낙류(연승류), 오징어를 잡는 오징어 낚시류, 문어를 잡는 봉낚시류의 낚시 어법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물 어법과 함정어구류, 통발류, 잠수기어법, 정치망어법, 손콩치를 잡는 맨손 어법 등이 있다.

3. 관광업(觀光業)

속초는 숲이 우거지고 물과 공기가 맑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지역이다. 기묘한 형상의 바위와 청정한 계곡,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파도, 온천과 호수 등이 한데 어우러진 자연의 경관만을 놓고 볼 때는 실로 한국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설악산의 일부가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의 하나로 지정될 정도로 각종의 희귀한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가. 관광의 역사

속초는 예로부터 항포구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수산도시로 어업이 주종산업을 이루어 왔으며 주민들의 대부분이 어업과 관계되는 일을 하여 왔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바다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이 퇴조를 보이는 한편 국민들의 소득증대에 맞춰 삶의 질 향상의 욕구의 하나로 관광을 즐기려는 경향이 커감에 따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속초지역이 점차 관광도시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관광도시로 변모되어진 속초지방의 관광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4.5. 10 수복기념탑 건립
- 1960.1.1 설악산관광호텔 개관
- 1966. 10. 1제1회 설악제 개최
- 1969. 12. 15 한병기 외 6명이 설악관광주식회사 설립(1971. 8. 1 설악산케이블카 영업개시)
- 1970.3. 24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65. 11 천연보호구역 171호 지정. 82. 8 유네스코 선정)
- 1976~1978 설악산 구단지내의 시설물 철거로 소공원 및 신단지 A,B,C 지구로서 신흥관광단지 조성
- 1978. 4.9 뉴설악관광호텔 개관
- 1978. 5. 12 (주) 동방원양개발공사의 자회사 동방호산개발 발족으로 영랑호 개발
- 1980. 4. 20 설악파크 호텔 개관. 1981. 4. 8 한국콘도미니움 개관. 1982. 2. 1 명성 콘도미니움 설립(그 외 9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

사조, 웰컴콘도 등의콘도와 기타 연수원까지 들어서게 되었다.)

- 1999. 9. 11~10. 30 청초호 유원지부지에서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개최, 60개국 78개 지방정부와 국내 33개 시·군 참가, 50일간 국내·외 관광객 226만명이 엑스포를 관람.
- 2000. 4. 28 백두산 카페리 항로 개설(러시아 자르비노항과 중국 훈춘항을 연결하는 북방 관광·교역 시작)



〈사진 46. 강원국제관광엑스포장 전경〉



〈사진 47. 백두산 카페리호 항로 개설〉

나. 속초지역의 관광 자원

속초지역은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제도 많다. 문화제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설악산과 속초8경(八景)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 설악산(雪嶽山)

설악산은 강원도 동북부의 금강산과 동남단의 오대산 사이에 있는 명산이다. 철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와 수려한 산세로 남한 제일의 산악미를 자랑하는 설악산은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 그리고 태백산맥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설악이란 이름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설산(雪山)', '설화산(雪華山)'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노산 이은상 선생은 설악산은 본래 '솔피'였는데 한자로 쓰다보니 설악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솔피'의 '솔'은 '설'의 음역으로 신성, 숭고, 결백, 생명을 뜻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설악은 특히 내설악과 외설악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북

쪽의 미시령과 남쪽의 점봉산을 잇는 설악 산맥이자 태백산맥이기도 한 주능선을 경계로 하여 동쪽(동해쪽)을 외설악, 서쪽(내륙쪽)을 내설악이라 부르고 있다. 외설악은 천불동계곡을 끼고 양쪽에 창검같이 솟은 기암절벽으로 남성적인데 비해, 내설악은 백담, 수림, 가야, 백운, 12선녀탕골 등의 계곡미로 경관이 우아하고 여성적이다. 설악산의 빼어난 경치는 지질기반인 화강암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 화강암의 암질의 차이와 여기서 비롯된 오랜 세월에 걸친 침식으로 웅장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이루고 있다.

설악산은 수림이 울창하며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각종 동물이 서식, 천혜의 생물 보고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청봉 일대는 고산식물의 천국으로 손꼽힌다. 유네스코 세계본부는 다양하고 희귀한 설악의 동·식물상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 8월 12일 설악산을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의 하나로 지정했으며, 설악동 소공원에는 1983년 4월에 건립한 세계 생물권 보존비가 세워져 있다.

박목월 선생은 “ 설악은 산이라기보다 위대한 인격에 접하는 숙연함을 느끼게 한다. 억만 년의 세월 속에서 바람과 비와 이슬과 햇빛에 바래고 씻긴 자만이 간직할 수 있는 표백된 정결성과 그것을 참고 이겨 낸 자의 강인한 정신성, 차고 준엄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풍모, 설악산의 바위는 결마다 이와 같이 표백되고 마멸되고 인내하고 씻긴 것의 신비스러운 숭엄성과 정결성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를 「만나 뵈려면」 손발을 씻는 상면의 절차쯤은 당연하게 치러야 하며, 그와 같은 마음가짐에서만 설악산은 설악산으로 살아나는 것이다”고 했다. 자연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은 결국 인간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으로 돌아온다. 설악산을 오르거나, 설악산 관광산업 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이들은 몇 번이라도 되새김해볼 가치가 있는 명언이다.

2) 속초팔경(八景)

속초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악산을 제외한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속초시민의 공모를 통하여 1999년에 선정했다. 속초시민은 물론 속초를 사랑하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들러 속초의 문화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 영금정의 속초등대전망대

영금정은, 파도가 돌산에 부딪치면 신묘(神妙)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또한 밤이면 선녀들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면서 놀던 곳이라 하여 『비선대(秘仙臺)』라 했다고도 한다.

일제시대에 속초 항만의 축항공사로 석산은 사라지고 현재는 넓은 암반 몇 조각만 남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잃어버린 이곳의 정취를 그나마 영금정 해맞이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이 살려주고 있다.



〈사진 48. 영금정 등대전망대〉

나) 영랑호의 범바위

영랑호는 신라의 화랑 영랑이 같은 화랑 친구인 술랑, 남랑, 안상 등과 함께 금강산의 수련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호수를 발견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 영랑호 둘레에 있는 범바위는 마치 범의 형상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옛날에는 범이 출몰했다고 할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나 지금의 속초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잔디밭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기분이 삼삼하다.



〈사진 49. 영랑호의 범바위〉

다) 청대리의 청대산(靑岱山)

청대산은 해발(海拔) 231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 놓은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병』(靑岱畫屏)이라 하였다 한다.



〈사진 50. 청대리의 청대산〉

청대산 정상은 속초시가지와 동해 일출, 대청봉(大靑峰) 달마봉(達磨峰) 울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眺望) 할 수 있는 천연(天然)전망대이다. 정상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등산할 수 있다.

라) 청초호(靑草湖)



〈사진 51. 청초호〉

청초호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부르기도 했으며, 그 아름다움이 옛날에는 영랑호보다 빼어났었다고 한다. 이 중환의 택리지에서 양양의 낙산사 대신 이 일대를 관동 8경의 하나로 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절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과거에 양양군에 사또가 새로 부임하면 환영연을 이 호수 위에서 베풀었다고 한다. 각종 새떼들의 보금

자리기도 한 이곳은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장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각종 관광상품의 판매장이나, 공연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제관광엑스포때 영구건물로 지어진 주제관과 상징탑이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사진 52. 속초해수욕장의 조도〉

조도(鳥島)는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소야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수십년째 인적이 끊긴 조도는 동해안 섬 중에서도 자연 식생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섬에 오르면 가파른 절벽과 파도,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조도는 바다에서 속초의 시가지와 설악산을 조망해볼 수 있는 전망대로서도 아주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채로운 이벤트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대, 바다낚시 등의 관광상품으로서 조도의 개방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바) 대포의 외옹치(外甕峙)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大浦)는 6·25사변을 전후(前後)로 발행된 지도에 동해안(東海岸)에는 부산, 포항, 묵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넙치, 방어 등 고급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밭독재'라 불리웠다 한다. 나지막한 산마루에서 바라보는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景觀)이 아름답다.



〈사진 53. 대포의 외옹치〉

사) 내물치의 설악해맞이공원

그림 엽서에서나 본 듯한 - 작은 섬 사이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그 사이로 조각배가 떠가고 - 정경을 실제로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대포동의 설악해맞이 공원이다. 특히 공원 내에는 유명 조각가 들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공연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개최되어 속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54. 설악해맞이공원〉

시원하게 탁 트인 바다와 닿아 있는 너른 공터와 조각품은 우리 속초 시민들이 쳇바퀴 돌리듯 지루한 일상을 한 순간이나마 접고 푸른 엽록소를 가슴에 가득 채우는데 안성맞춤인 장소이기도 하다.

아) 상도문의 학무정(鶴舞亭)

학무정은 상도문 1리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육모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마을에 살던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이 1934년에 건립하였으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 55. 학무정〉

선생님은 학문이 깊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3·1운동 때에는 제자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에도 참여했다고 한다. 지금도 울창한 송림 속의 정자에 앉아 있으면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조리는 선생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3) 향토문화축제(설악문화제)

설악문화제는 종합 향토축제로서 그 기원을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제례의식에서 찾는다.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 제사조(祭祀條)에 삼산(三山) 오악(五岳) 이하 명산대천(名山大川)을 나누어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를 지냈으며, 그 중 설악산이 소사(小祀)를 지낸 곳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집전했으며 설악을 영동의 진산으로 평가했다는 증거이다. 이처럼 고대의 제천행사에 그 뿌리를 두는 설악문화제는 처음의 명칭은 설악제로 1966년 사진작가 최구현(崔九鉉)씨에 의해 속초예총이 주축이 되어 산신제와 등반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향토축제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최구현씨가 작성한 제1회 설악제 개막식 연설문에는 “설악산 개발 10년을 기념하여 이 설악제를 개최하며,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여기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연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설악제가 관광객 유치에 위한 홍보차원에서 개최된 산악 문화 행사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1966년 10월 1일 개최한 제1회 설악제의 행사로는 전국등반대회를 선두로 사진 공모전, 미협 협회전, 음악의 밤, 무용의 밤, 등의 행사를 열었다. 제30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문화”를 삽입,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제31회부터는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순수한 전통 민속축제로서 면모를 새롭게 갖추면서 지역축제 및 전국행사로 발돋움 하고 있다.

행사의 추진위원회는 설악제추진위원회, 통일염원제전위원회, 설악산악제추진위



〈사진 56. 제35회 설악문화제 전경〉

원회, 설악예술축전추진위원회, 거리문화축전추진위원회, 향토민속축전추진위원회, 해양문화제전추진위원회, 놀이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설악문화제는 이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를 선보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알찬 향토축제로서 관광지 속초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다.

Ⅵ. 속초의 향토인물



VI. 속초의 향토인물

1. 유희일(兪晦一)

호는 물재(勿齋). 창원 출생.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 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사당을 세워 추모하였으나, 사당은 사라지고 지금은 유허비(遺墟碑)만이 대포동(내물치리)에 세워져 전한다.

2. 박지의(朴志誼 ; 1799~1859)

자는 윤지(允之), 호는 이재(彝齋).도문동(상도문리)에서 출생.

어려서 모친을 잃은 후 부친에게 효성을 다하다가,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자 자신의 손에 피를 흘려 부친의 병환을 구하였으며, 또한 충효를 겸비하여 현종 임금이 승하함에 쌍천변 학무정 옆에 제단을 마련하고 삼시곡배(三時哭拜)하여 사람마다 충신 박지의의 단이라 칭송하였다. 그 후 사림이 보호하여 정려(旌闈)하였다고 전해진다. 도문동(상도문리 사리치)에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다.

3. 홍경호(洪景昊 ; 1854~1945)

법명 흥운당(興雲堂). 평양 출생.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청년기에는 반일 사상이 투철하여 일본 관헌에 항거하다 산사에 피신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문에 출가. 이 후 신흥사에서 다년간 수도 끝에 주지가 되었고, 약 20여 년 간에 걸쳐 사찰 관리와 포교에 진력하는 한편, 불도들에게 배일 조국독립 사상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4. 이석범(李錫範 ; 1859~1932)

자는 사일(士一), 호는 설초(雪樵).

일찍이 부모를 모시고 지금의 설악산 아래 도문에 들어와 살았다. 전통적인 유학자로서, 왕조 군부주사(軍部主事),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어 국정을 심의하기도 하였고, 지방에서 날뛰는 도둑떼를 평정하며 신흥사 파산을 복구하기도 하였다. 그 후 개화 문물에도 눈을 돌려 대포항 개설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이후, 양양과 도문에 학교를 설립하여 항일독립운동을 고취하였으며, 3·1운동 당시 우리 지역 만세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투옥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했다.

1926년 이상재 선생 등과 민족주의 통합체인 신간회를 조직하고 강원도 지부장으로 활약하였다.

5. 오윤환(吳潤煥 ; 1872~1946)

자는 성빈(聖彬), 호는 매곡(梅谷).

상도문리에서 출생한 한학자이며, 학문의 경지가 깊었으나 욕된 삶을 멀리 하는 선생의 의지가 굳어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으며, 고향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만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공을 '매곡처사' 또는 '오학자'라 부르기도 했다.

상도문에 있는 '학무정'(속초8경의 하나)은 선생이 남긴 유물 중 하나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휴식처 되고 있다. <속초 지역의 문화재 참조>

6. 김환기(金煥基 ; 1889~1955)

함흥 한의원 강습소를 수료하고 주로 조양동, 영랑동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준 분이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에 참여,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에 반일 의지는 더욱 굳어졌고, 광복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당 무리가 날뛰자 항일 의지를 반공으로 방향 전환하였으니, 1946년 3월의 이른바 속초 90인 사건의 주역이었다.

서북 청년회 영동지구 본부 고문으로 전후 수습과 지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7. 박상희(朴祥喜 ; 1890~1948)

호는 초은(樵隱).장사동(장천리) 출생.

한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신문학에도 해박하였으며, 성품 또한 온후인자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928년 도천면장으로 천거된 이후 지역 주민의 복지 행정에 온힘을 다 하였다. 선생은 협소한 대포리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의 설계를 성안하여 당시 총독부로 하여금 속초축항공사를 착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33년 미시령 차도 개설 사업, 1937년 속초로 면사무소 이전 및 1942년에는 속초를 면에서 읍으로 승격시키기도 하였다.

이로부터 속초가 항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공의 혜안에 모두들 감탄하여 존경해 마지 않았다.

8. 고재동(高裁東 ; 1890~1946)

중앙동 출신.

일찍이 일본인들의 연안 조업이 기업화될 것을 보고, 처음으로 개발된 어장구를 도입하여 현대 수산업을 시도한 수산업계의 선각자이다. 재래식 조업에서 저인망과 정어리 견찬선 조업과 정치망으로 불과 수년 내에 강원도 동해안 수산업계의 일인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1936년에는 영랑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별 세액을 속초 전체 면민을 대신하여 전액 단독 부담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학교 입구에 공덕비가 세워졌으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철거되기도 하였다.

9. 김용식(金龍式 ; 1896~ ?)

1896년 도문동(중도문리)에서 출생.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수학하여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의지를 지닌 학구파로, 그 후 변호사업을 개설하여 민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 서 왔다.

광복 후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구 지방법원장, 부산 지방법원장, 대구 고등검찰총장 등을 역임하고, 1960년 4·19 당시 혁명 검찰부장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선생은 평소의 처신이 공명정대하여 전형적인 법조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평생을 오직 참된 법조인의 긍지와 청빈한 생활로 여생을 마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다.

10. 김정진(金廷鎭 ; 1899~1984)

일제 강점기에 평소 우애가 두터웠던 춘천의 이종순으로부터 속초 지역의 독립만세 운동을 책임지고 맡으라는 밀명을 받고 100여 명의 동지들과 태극기를 만들어, 기미년 3월 4일 조양동(부월리) 마을회관 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도천면 대포 경찰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한 독립운동가이다. 그 때 양양경찰서 점거를 위해 대포고개를 넘다가 일경과 격돌, 체포되어 고문으로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그 후에도 선생은 부자유한 운신과 감시 대상으로 본가에서 농사일을 돌보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반일, 반공 사상 고취에 헌신한 독립 유공자로 후손들이 그 정신을 받들 가치가 있다.

11. 서창하(徐昌河 ; 1904~1976)

함경남도 고원군 출생.

선생은 고향에서 함흥 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광복전까지 함남지방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다.

1·4 후퇴시 월남하였으며, 동해안 수복지구인 이곳에도 중등교육 기관의 존립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와중에도 1952년 3월 고성군 동광중학교를 설립하고, 같은 해 5월 속초고등학교 설립 인가를 받아 그 해 6월 이 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 후 신철원의 갈말중학교, 신철원농업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말년에는 다시 속초여자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12. 지일권(池一權 ; 1927~1993)

함남 원산 출생.

함흥고보와 원산 교육대학을 수료한 후 월남하여 한국일보 기사를 지낸 언론인으로, 그 후 속초문화원장을 역임하였다.

문화원장 재직시 속초시지 편찬위원장을 맡아 시지를 편찬하는 등 속초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13. 김복남(金福男 ; 1933~1995)

장사동 출생.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 AFKO를 설립하여 가나국에서 제일 가는 수산업을 경영한 사업가였다.

가나국 올림픽 위원, 교민회 회장, 유럽지구 교민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교인 영랑초등학교에 약 15년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내었으며, 속초시를 통해서도 불우한 후학들의 양성에 힘써달라고 거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14. 유정충(劉楨忠 ; 1946~1990)

함남 북청군 신포읍에서 출생하여 월남, 부산을 거쳐 속초에서 선원과 선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1990년 3월 1일 어선 '하나호'를 타고 제주 남방 동지나해 370마일 해상에서 오징어
잡이 조업을 하던 중 풍랑으로 어선이 침몰하자, 동료 선원 21명을 구하려 끝까지 구
명정 승선을 포기한 채 어선에 남아 구조 신호를 타전하다가 배와 함께 운명을 함께
했다. 이 감동적인 사건은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으켰으
며, 거룩한 희생 정신의 표본으로 어민들은 물론 전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 주었다.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 앞에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 향토부리교육 추진위원회 —

- 속초교육청: 박정치(교육과장), 최현규(초등장학사), 김충길(중등장학사)
- 속 초 시: 채용생(부시장), 김철수(문화공보실장)
- 속초문화원: 최용문(문화원장)
- 속초시의회: 최창영(의원), 김종수(의원), 백영철(의원)
- 속초고등학교: 이명수(교감)

— 향토부리교육 교재편찬위원회 —

- 초등교사: 박대성, 김용근
- 중등교사: 최종근, 신정남, 김시철, 홍문표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손병섭, 한은자, 김정환, 황양미, 박순자, 신창승, 김영준, 엄경선, 한정규
- 조영길(강원도민일보, 편집기자)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2000. 12. 30 발행

발행처 : 속초시·속초문화원

발행인 : 속초뿌리교육 추진위원회

편집인 : 속초뿌리교육 편찬위원회

인쇄처 :

〈비매품〉



Sokcho

속 초 시
속 초 문 화 원